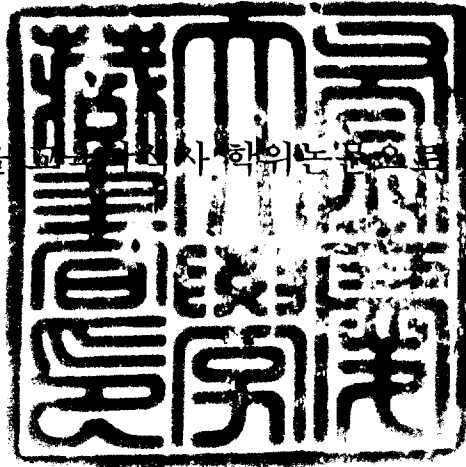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고려속가 교육 방법 연구

지도교수 김 채 덕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류연정

류연정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5년 8월 31일

주 심 문학박사 고 순 희 (인)

위 원 문학박사 곽 진 석 (인)

위 원 문학박사 김 채 덕 (인)

차 례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사 검토	2
3. 연구 방법 및 연구 범위	6
II. 고려속가 교육의 중요성	8
1. 고전 문학 교육의 필요성	8
1) 제7차 교육 과정 ‘문학’ 과목의 목표와 내용 체계	8
2) 고전 문학 교육의 의의	11
2. 고려속가 교육의 의의	13
1) 고려속가 교육의 문제점	13
2) 고려속가 교육의 중요성	15
III. 고려속가 교육 방안	18
1. 고려속가 작품의 ‘문학’ 교과서 수록 양상 검토	18
2. 고려속가 교육의 문화적 접근	22
3. 고려속가의 문화적 요소	24
1) 정서적 요소	25
(1) 이별의 정한	25
(2) 기다림	28
2) 음악적 요소	34
3) 표현 동작적 요소	39
4. 고려속가 지도 방안 및 교수·학습 모형 설계	44
1) 고려속가의 지도 방안	44
2) 교수·학습 모형 설계	49
IV. 결론	60
<참고문헌>	64

ABSTRACT

A Study on Teaching Methods of "Goryeo Sokga"

Ryu Yeon-Jeong
Korean Language Education Major
The Graduated School of Education
Pukyeong National University

In this paper, we intended to propose an educational method for Goryeo Sokga to help perform objects and direction of teaching · learning of the 7th curriculum.

First of all, it had been studied that the educational meaning of Goryeo Sokga in the 7th curriculum, and examined the problems occurred from teaching · learning of the Goryeo Sokga. Due to the burden as classics and the approaching method as a cramming educational system, the education of Goryeo Sokga has not been proceeded by its current educational objects as well. With these critical minds, it has been proposed that the effective teaching · learning method for Goryeo Sokga through cultural approaching method.

Goryeo Sokga, which was the court popular music in the era of Goryeo, had been enjoyed with song, accompaniment, and dance by the Ginyeo(an official dancing girl) in Kyobang. Therefore it was well encapsulated that the emotional factor as an lyrical genre, musical factor accompanying with accompaniment, and motional factor as a dancing. So to completely understand this Goryeo Sokga, it should be required to study these three factors which was appeared in this genre as typical cultural factors.

First, for emotional factor, emotion can be internalized by understanding the feelings of speaker in poet and recomposing these feelings creatively through situational play by group. Moreover this group activity raises the partnership among members, and recomposing Goryeo Sokga into situational play allows to integrate various fields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Korean.

Second, for musical factor, it is possible to guess the melody at that time by going down of the 'Chdae|ngganbo Notation' in many literatures. Through the on-the-spot filming data of playing Goryeo Sokga, it can be understood effectively by considering the shape of Goryeo Sokga played in that time, not by simple learning it as literature.

Third, for the expression of motion, it is also possible to imagine the musical instruments and deportment of dancing Ginyeo at that time through several literatures. By appreciating the filming data for Goryeo Sokga playing, it can be learned the specific scenes of performance.

Therefore, when Goryeo Sokga is understood not by simple literature but by pluralistic approaching considering the features of genre, it can be grasped that the cultural factors melted in the works systematically and completely understand the throughput Goryeo Sokga. This may give an accordance to the educational objects of current curriculum.

In this paper, we introduced the teaching · learning model by applying the above three factors to 'Dong-Dong(a work of Goryeo Sokga)'. By this, it is intended to acquire significance for this paper to help embodiment of Goryeo Sokga education.

I. 서론

1. 연구 목적

고려속가는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려 민중의 진솔한 생활 감정을 표출해 낸 시가 문학으로서 국문학에 있어서는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그리고 역사적·사회적으로 형성된 한국인의 보편적 가치와 미의식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 교육적 가치 또한 높다.

현행 제7차 교육 과정에서 문학 교육의 목표는 문학 일반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수용과 창작 활동을 통하여 문학의 가치를 자신의 삶에 통합하여, 문학의 전통을 이해하고 문학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통해 문학 활동이 공동체의 통합과 발전을 지향하는 문화적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7차 교육 과정은 국어 활동에서의 문화 요소를 강조하고 있는데, 국어의 여섯 영역 중에서 가장 문화적 요소가 많이 작용하는 것은 문학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문학 교육의 방법론적 연구는 이러한 목표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능동적 문학 체험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 방안을 다양한 각도에서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교수·학습 지도의 실제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며, 아직까지도 고전 문학 교육에서는 일방적인 강의식, 주입식 수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이유로 고려속가 역시 학생들에게 문학의 즐거움을 주는 작품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현대와 멀리 동떨어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며, 외워야 하는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고려속가 작품의 특성을 고려한 교수·학습 방법의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더 나은 교육적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 생각한다.

본 고에서는 이를 인식하고, 고려속가가 갖는 미학적 가치는 물론, 노래 속에 담긴 문화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한 문화적 접근 방법을 통해 제7차 교육 과정의 목표에 부합하는 구체적 지도 방안을 모색하여 고려속가의 효과적인 지도 방안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연구사 검토

고전 문학에 대한 연구는 국문학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작품의 내용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 등에서 많은 성과를 이끌어내었다. 그 성과를 기반으로 고전 문학 작품이 갖는 문학적 가치를 효율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교육적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고전 문학에 대한 교육적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고전 시가를 현대시와 관련지어 그 전통 계승에 대한 연구를 한 염은열¹⁾은 ‘고전 시가’와 ‘현대시’를 상대항으로 설정하고, 둘을 포괄하는 상위의 개념으로서의 ‘한국 시가’라는 범주를 교육에서 아우를 때 ‘전통’의 개념과 만나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한국 시가 교육’에 있어서 전통의 문제

1) 염은열, 「시교육과 고전」, 『현대시교육론』, 시와시학사, 1996.

에 대해 지식의 구조로서의 '전통'의 특성을 규명하고, 교육 방법론 차원에서 특수성의 인식과 보편성의 편입을 제시하였다.

박경주²⁾는 현재 고전 문학 교육 연구의 중심 화두가 문화 원리에 있다고 하였다. 고전 문학의 경우, 당대의 문학사적 의미망 안에서 작품의 미의식이나 가치에 대한 평가를 내려 문학 교육에서 다루어야 하며, 고전 문학의 현대적 적용 역시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권오경³⁾은 제7차 교육 과정에서 국어과의 하위 범주인 문학 영역의 특징 가운데 문화 원리에 대한 언급을 시도하면서 문학 문화와 교육의 접점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문학 문화로서의 시가 교육의 방향도 제시하였다.

허왕욱⁴⁾은 고전 문학 교육에 접근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교육의 지향점을 전통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의 형성과 문학 능력의 신장, 문학적 상상력의 향상으로 보고, 심미성, 관계성, 인간성의 원리를 통해 고전 문학 교육의 원리를 설정하였다.

서종문⁵⁾은 고전 문학 교육의 실상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고전 문학 교육의 개념적 검토를 실시하였다. 또한 고전 문학 교육의 실천적 과제로서 학습자 중심의 수행 평가뿐만 아니라, 교사의 교육 활동 또한 중시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홍규⁶⁾는 고전 문학 교육과 현대 문학 교육의 차별성을 전제하였다. 고

2) 박경주, 「고전문학 교육의 연구 현황과 전망-시가교육을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1집, 청관고전문학회, 1999.

3) 권오경, 「제7차 교육 과정과 시가문학교육」, 『안동어문학』 4집, 안동어문학회, 1999.

4) 허왕욱, 「제7차 교육 과정에 따른 고전문학 교육의 방향」, 『한어문교육』 7집,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1999.

5) 서종문(2001), 앞의 논문.

6) 김홍규, 「고전문학 교육과 역사적 이해의 원근법」, 『한국 고전문학과 비평의 성찰』, 고려대학교출판부, 2002.

전 문학 교육은 과거의 문학적 사실에 관한 지식의 전달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며, 존재하는 작품과 작가에 관련한 지식은 해석의 유효 요소라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전 문학을 역사성으로부터 떼어내어 객체로 본다면, 역사적 원근법 없이 현재화하는 것은 옳바르지 못하며, 고전 문학이 오늘날의 우리와 역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타자의 문학임을 인정하여 접근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고전 시가의 하위 범주로서 고려속가의 문학적 가치를 교육적 관점에서 연구한 논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염은열⁷⁾ 고려속요의 공감 원리가 무엇이며, 어떤 미적 구조에 의해 나름의 문학성을 확보할 수 있었는지를 밝혔다. 그는 이러한 작업이 문학 연구자체로서의 의의와 함께, ‘교육되어져야 할 것’의 이론적 근거와 구체적 항목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교육적인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고려속요와 같은 공적 담론의 원리가 현재의 담론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에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고려속요의 미적 구조가 갖는 현재적 의미까지 밝히고자 했다.

이유지⁸⁾는 고려속요의 효과적인 수업 지도 방법의 모색에 연구 목적을 두고, 교사의 입장에서 고려속요를 지도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항목을 뽑아 논의함으로써 바람직한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 문학 수업에서 교사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들을 항목으로 정하여 그 성격을 규명하고, 그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성기옥·김은미⁹⁾는 고려속요에 나타난 해석의 다양성을 중심으로 인지

7) 염은열, 「고려속요의 미적 구조에 관한 연구-내적 형식의 이야기성과 그 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8) 이유지, 「고려속요 지도의 방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9) 성기옥, 김은미, 「고려속요의 문학교육적 지도방안-고려속요에 나타난 해석의 다양성을 중심으로」, 『교과교육학연구』 3권 1호, 이화여대교과교육연구소, 1999.

적 요소와 작품을 읽는 즐거움이 고전 시가 문학의 감상과 수용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밝히고, 교사와 학습자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현행 고려속요 작품에 대한 지도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 효과적인 지도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정도¹⁰⁾는 제6차 교육 과정의 문학 영역의 양상을 검토하고, 고려속요 작품의 교과서 수록 양상과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고려속요의 정서적 요소를 중심으로 한 문학 교육적 방향과 문학도 문화의 일종이라는 인식 아래, 교육 공학적 측면과 문화 공학적 측면의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하였다.

김윤정¹¹⁾은 기존의 고전 시가 교육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현대시와 함께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의 고전 시가에 대한 거부감을 덜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고전 시가의 정서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에서 전통의 현대적 계승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고전 시가의 교육적 가치를 도출하였고, 그와 더불어 문학 교육의 목표인 학습자의 능동적인 수용, 창작 활동까지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시용¹²⁾은 고려가요의 정서가 당대 고려인의 정서를 잘 표현하고 있음은 물론, 오늘날의 미의식과도 가까운 시가 문학이라고 본다. 그리고 고려가요 지도 내용으로 정서 체험과 내면화의 방법을 들면서 전통적 작품의 창조적 계승이라는 관점에서 교수·학습 모형을 연구하였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고전 문학 교육과 고려속가 교육에 대한 연구들은 국문학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고전 문학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할

10) 이정도, 「고려속요 교육론-정서체험과 내면화 방안을 중심으로」, 세명대학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11) 김윤정, 「고전시가 교육방법 연구:전통의 현대적 계승을 중심으로」, 숙명여대학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2) 김시용, 「고등학교 문학교과의 고려가요 교수-학습 모형연구」, 위덕대학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교육적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문학을 하나의 문화로 보고 총체적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학 교육 연구의 경향이 고려속가 교육 연구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고려속가 교육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작품의 정서적 측면의 현대적 계승에 머무르고 있고 교수·학습 모형도 연구 성과에 비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연구는 문학 교육에 문화 원리를 도입한 총체적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어 앞으로의 연구에 디딤돌 역할을 해 준다는 큰 의의를 갖는다.

3. 연구 방법 및 연구 범위

선행 연구들을 검토해 보면, 최근 문학 교육에서는 전통의 계승을 중심으로 한 문화적 측면의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제7차 교육 과정의 국어과 목표가 ‘인지적, 정의적 영역의 통합적 달성’이라는 방향을 가지고, 다양한 유형의 국어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과 사상과 정서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의 향상을 강조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곧 문화적 접근 방법을 통해 국어의 발전과 국어 문화의 창조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최근 문학 교육 연구의 방향인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방향에 궤를 같이 하여, 제7차 교육 과정의 목표에 좀더 부합하는 고려속가의 교육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II장에서는 제7차 교육 과정에서 ‘문학’ 과목의 목표와 내용 체계와 함께 고전 문학 교

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고려속가 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본 후, 고려속가 교육의 중요성과 그 효과적 교육 방안의 방향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먼저 현행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고려속가 작품을 검토한 후, 「가시리」, 「서경별곡」, 「정읍사」, 「동동」을 대상으로 ‘문학’ 과목의 교육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고려속가 교육에서 문화적인 접근의 의의를 생각해 보고, 네 작품을 중심으로 고려속가의 정서적 요소, 음악적 요소, 표현 동작적 요소가 작품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 문화적 요소들을 어떻게 고려속가 교육에 적용할 것인지 교수·학습 지도 방안과 구체적인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내용들을 정리하며 앞으로의 고려속가 교육 방안 연구의 가능성과 전망으로 본고의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Ⅱ. 고려속가 교육의 중요성

1. 고전 문학 교육의 필요성

1) 제7차 교육 과정 ‘문학’ 과목의 목표와 내용 체계

제7차 교육 과정에서 국어과는 ‘한국인의 삶이 배어있는 국어를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 정보화 사회에서 정확하고 효과적인 국어 생활을 영위하고, 미래지향적인 민족 의식과 건전한 국민 정서를 함양하며, 국어 발전과 국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 하려는 뜻을 세우게 하기 위한 교과’¹³⁾로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어과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국어 활동은 모든 교과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도구 교과적 성격을 갖기도 한다. 게다가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교과이기도 하며 나아가 ‘국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 하는 교과로 그 성격을 규정지을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제7차 교육 과정은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국어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언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는 목표를 가진다.

13)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부 고시 1997-15호 「고등학교 교육 과정 해설 2. 국어」, 대한교과서, 2001, p18.

이 목표는 국어과의 ‘문학’ 과목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문학’ 과목은 ‘문학 능력을 신장시키고, 문학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문학을 즐기며 깨달음을 얻고, 문학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르는 과목’으로서, ‘문학의 수용과 창작 활동을 통해 문학 능력을 길러, 자아를 실현하고 문학 문화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바람직한 인간을 기른다.’는 목표를 갖는다. 그리고 목표의 하위 항목으로 다음과 같은 세부 목표를 교육 과정은 제시한다.

- 가. 문학 활동의 기본원리와 문학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이해한다.
- 나. 작품의 수용과 창작 활동을 함으로써 문학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기른다.
- 다.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세계를 이해하며, 문학의 가치를 자신의 삶으로 통합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 라. 문학의 가치와 전통을 이해하고 문학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문학 문화 발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지닌다.¹⁴⁾

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문학’ 과목은 학생들의 능동적인 문학 활동의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문학’ 과목은 문학 활동의 기본 원리와 문학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의 이해를 갖춘 후에 작품의 수용과 창작 활동을 통해 문학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기르고자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문학을 통하여 자아실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으며, 문학의 가치를 학습자의 삶으로 통합하려는 태도를 갖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곧 제7차 교육 과정의 문학 교육의 핵심은 지식을 기반으로 한 작품의 수용과 창작 과정인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창작’은 예술 창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14) 교육인적자원부(2001), 앞의 책, p303.

또, ‘다’와 ‘라’의 항목을 통해 문학 활동을 통한 지향점은 가치와 태도이며, 문학 활동은 공동체의 통합과 발전을 지향하는 문화적인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제7차 교육 과정에서는 문학을 문화의 일부로 보고 문학 교육에서도 문화가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¹⁵⁾.

이와 같은 목표를 고려하여 ‘문학’ 과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체계를 가 갖는다.

<제7차 문학 교육 과정의 내용체계>¹⁶⁾

영역	내용
(1)문학의 본질	(가) 문학의 특성 (나) 문학의 기능 (다) 문학의 갈래 (라) 문학의 가치
(2)문학의 수용과 창작	(가) 문학의 수용과 창작 원리 (나) 문학의 수용 (다) 문학의 창조적 재구성 (라) 문학의 창작
(3) 문학과 문화	(가) 문학 문화의 특성 (나) 한국 문학의 특질과 흐름 (다) 세계 문학의 양상과 흐름 (라) 문학의 창작
(4) 문학의 가치화와 태도	(가) 문학의 가치 인식 (나) 문학 활동에의 능동적 참여 (다) 문학에 대한 태도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 내용은 ‘본질’, ‘원리’, ‘태도’, ‘실천’의 네 영역으로 구분하여 체계화 되어 있다. 먼저 ‘(1) 문학의 본질’ 영역은 문학 일반의 이론과 개념에 대한 지식 습득에 초점이 있다. ‘(2) 문학의 수용과 창작’ 영역은 문학의 수용과 창작의 원리를 이해하고, 실제로 문학 활동을 해

15) 본 고에서도 문학 교육에서 ‘문화 요소’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고려속가 교육에 적용시켜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내용은 III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16) 교육인적자원부(2001), 앞의 책, p304~305.

보는 실천성에 초점이 있다. ‘(3) 문학과 문화’ 영역은 포괄적인 문화의 관점에서 문학을 이해하고,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의 양상을 살펴 지식보다는 활동을 통한 학습자의 내면화를 더 강조한다. 그리고 ‘(4) 문학의 가치화와 태도’ 영역은 문학의 가치를 인식하고 문학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문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내면화하는 데 초점이 있다.

그러므로 ‘문학’ 과목의 내용 체계를 통해 문학 교육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알 수 있다. 문학 교육의 내용은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학 활동이라는 실재를 통해 학습자가 작품의 가치와 문학에 대한 태도를 내면화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학습자가 문학이 문화임을 인식하고 문학 활동을 통해 올바른 문학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2) 고전 문학 교육의 의의

‘고전(古典)’은 단순히 옛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이 흘러도 그 가치가 변함없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조상들의 정신적 문화 유산을 말하는 것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고전을 통해 정신적 지침으로서 조상들의 삶과 정서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다.

고전 문학 작품 역시 그러한 가치를 갖는데, 우리는 고전 문학 작품을 감상함으로써 민족의 전통적 사상과 감정을 이해할 수 있고, 언어와 문학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인격을 형성하여 미래의 삶을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당대를 살던 조상들의 삶을 체험함으로써 그들의 지혜, 정서, 가치관을 배우고 나아가 우리의 언어 생활과 삶을 풍요롭

게 만들 수 있다.

특히 고대 가요, 향가, 고려속가, 경기체가, 악장, 한시, 고시조, 가사 등으로 대표되는 고전 시가 문학은 서정적 세계를 노래한 고전 문학이다. 고전 시가는 발생의 유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래 부르고 춤을 추며 그 속에 인간의 감정과 사상을 고스란히 담아낸 삶의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조상들의 정서를 비롯한 삶의 양식과 당대의 사회·문화적 정서 그리고 노래 속에 응축된 문화적 상상력 등은 고전 시가 교육의 대상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갖는다.

그리고 고전 시가의 정서 및 문화적 상상력은 현대시에도 그 맥이 이어지고 있고, 현대를 사는 우리도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정서이기 때문에 그 정서 체험을 내면화함으로써 고전 시가 문학을 좀더 친숙하게 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고전 문학 교육은 과거의 문학적 사실에 대한 지식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고전 문학 작품을 유기체이자 심미적 대상으로 이해하고 감상하면서 문학을 문화의 일부로 인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학습자는 현대와 사회·문화적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고전 문학에 담긴 우리 민족의 전통적 정서와 내재되어 있는 문화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문학 체험을 자신의 삶에 통합시켜 문학 능력의 신장을 이끌어낼 수 있고, 보다 나은 문학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태도도 기를 수 있다.

고전 문학은 현대 문학, 세계 문학과 함께 문학이라는 큰 틀 안에 묶여 있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교육적 가치 면에서 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고전 문학을 고리타분한 옛 것으로 치부하며 멀리할 것이 아니라, 현대 문학과 세계 문학이 줄 수 없는 미학

적 가치와 문화를 고전 문학에서 찾아내고 교육해야 할 것이다.

2. 고려속가 교육의 의의

1) 고려속가 교육의 문제점

고려속가는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려 민중의 진솔한 생활 감정을 표출해 낸 시가 문학으로 국문학에서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또한 역사적·사회적으로 형성된 한국인의 보편적 가치와 미의식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가 높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고려속가의 해독과 작품 외적인 부분에서 많은 연구 성과를 남기고 있기는 하지만, 교육의 바탕이 되어야 할 국문학적 연구가 많은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론의 정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교사가 다양한 작품의 어석 중에서 어느 한 견해를 택하는 것도, 여러 견해를 모두 소개하는 것도 교육 현장에서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교사들은 대부분 문학사적 지식과 함께 내용 파악까지도 교사 중심의 주입식 수업 방식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고려속가 작품의 내용을 감상하고 작품 속에 내재된 문학적 아름다움을 즐기기도 전에 교사가 지적하는 작품의 구절과 그에 해당되는 현대어를 외우게 된다. 곧 작품 전체의 내용 파악이 아니라 시험에 잘 나오는 구절, 작품의 주제와 형식 등을 각각 외움으로써 문학 작품의 총체적인 이해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며 고전 문학 전반에 대한 흥미까지 잃게 되는 것이다.

제7차 교육 과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 평가에 이르기까지 수용자 중심, 구성주의에 입각한 교육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곧 문학 교육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며 이를 창조적으로 재구성해 봄으로써 문학 활동의 실제 능력을 기르고 동시에 문학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교육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교사 중심의 수업만으로는 현행 교육 과정이 추구하고자 하는 교수·학습은 이루어지기 힘들다. 또 문학 교육 방법의 개선을 위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각 장르의 특징에 맞는 구체적 교육 방법의 연구도 아직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고려속가를 단순한 문학 텍스트로, 일차원적인 접근 방법을 취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고려속가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형성 배경은 어떠한가, 어떤 형태로 향유되었는가 하는 작품 외적인 부분까지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작품의 내용 파악에 치중한 주입식 수업에서는 고려속가가 궁중 속악으로서 교방 기녀들에 의해 음악과 춤을 동반한 노래로 불려졌다는 사실이 간단한 설명을 덧붙이는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현행 교육 과정은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교과서를 벗어난 다양한 보충 자료의 활용을 권하고 있다. 특히 고려속가 교육에서 당대의 생활 모습을 비롯한 문화적 선행된다면 작품의 이해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또 시청각 자료의 활용을 통해 고려 시대와 현대라는 천여 년에 이르는 시간적 거리감을 좁힐 수 있으며, 고전에 대한 학습자들의 거부감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고려속가 작품 중에는 현대에도 음악이나 무용의 형태로 전해지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고려속가 교육에서는 이를 음악이나 무용 등 타 교과와 것으로 생각하여 간단한 설명만 덧붙일 뿐이다. 고려 시대에 속가는 음악과

춤의 형태로 향유되었으므로 음악과 무용으로 전하는 자료들은 물론 고려 속가가 전해지는 문헌들은 당대의 속가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따라서 노래와 춤, 음악이 함께 어우러져 향유되던 것을 그 가사만 떼어 내어 내용을 파악하고 고려 시대의 문학으로 이해하는 것은 고려속가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고려속가 교육에는 고려속가의 특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다원적인 접근 방법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작품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 방안이 요구된다.

2) 고려속가 교육의 중요성

고려 시대는 한시, 민요, 무가, 향가, 고려속가, 경기체가, 시조, 가사 등 다양한 노래들이 존재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 속에서 고려속가는 대부분 유실되고 『고려사』 악지, 『악학궤범』, 『악장가사』, 『시용향악보』 『대악후보』 등의 문헌에 실려 전해지고 있는데, 가사와 함께 전하는 것은 「정읍사」¹⁷⁾, 「동동」, 「처용가」, 「정과정」, 「서경별곡」, 「청산별곡」, 「쌍화점」, 「정석가」, 「만전춘별사」, 「이상곡」, 「사모곡」, 「가시리」, 「유구곡」, 「상저가」 14편뿐이다. 그 외 여러 작품들은 『고려사』 악지에 노래의 명칭과 그 내용만이 전해지고 있다.

17) 「정읍사」는 백제의 노래로 현행 ‘문학’ 교과서에서는 고려 시대 노래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그러나 궁중속악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백제의 노래인 원가(原歌)가 변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고려 시대 속악의 가사로 사용되었던 고려속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여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렇듯 문헌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작품의 난해 문구도 많고 어석 연구에서도 많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고려속가 교육의 어려움을 가져오는 요인이기도 함을 살펴보았다.

게다가 조선 시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문자로 정착되었기 때문에 작품의 형식이나 내용이 변형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 초 유학자들의 유교적 관념에서 본다면 민중들의 솔직한 감정이 담긴 민요적 성격을 가진 고려속가는 내용이 비리한 ‘남녀상열지사’일 뿐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속가는 오늘날까지 전해져 우리 조상들의 사상과 감정을 진솔하고 담백하게 그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대 가요와 향가에 이어 그 풍부한 정서를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려 형상화하고 있기에 그 교육적 가치는 크다고 본다.

또 민요를 기반으로 속악에 맞도록 개편되었기 때문에 고려속가에는 일반 민중들의 삶과 관련된 이별이나 그리움, 사랑 등의 정서가 귀족과 왕족들에게도 공감을 얻어 당대의 ‘보편적 정서’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서는 현대시에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 역시 고려속가의 문학적 가치이자 교육적 의의라 할 수 있다.

고려속가는 시조, 가사 등 다른 고전 시가보다도 오늘날의 현대적 미의식과 가깝기 때문에 쉽게 우리 선조들의 미의식과 정서를 비롯한 작품 속에 내재된 문화적 요소를 작품을 통해 체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고려속가는 고려 후기 계속되는 내란과 외환 속에서 주로 형성된 것으로, 이를 배경으로 하여 민중들은 민요를 지어 부르며 혼란하던 시기의 삶의 한을 달래곤 했다. 이것이 당시 왕과 권문세족들의 취향에 맞아 궁중속악의 가사로 채택되어 노래와 음악, 춤으로 향유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속악은 노래와 춤, 악기의 연주가 함께 어우러져 행해졌던 것이나 지금 전하고 있는 고려속가는 그 노랫말일 뿐, 구체적으로 연행되던 방

식을 알아내기에는 문예학적, 음악적 연구가 더 필요하다. 하지만, 고려속가의 발생 배경을 생각해 볼 때, 각 지방의 기녀나 여무, 관비들이 궁중으로 선발되어 들어오면서 각 지방의 민요가 궁중속악으로 유입, 개편되었음¹⁸⁾은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형성 배경을 통해 그 장르적 특징을 살펴보면, 고려속가는 제7차 교육 과정의 문학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잘 실천할 수 있는 갈래임을 알 수 있다. 고려속가는 노래와 춤, 악기의 연주가 어우러져 향유되었던 노래이므로 그 성격의 접근이 다양한 측면에서 가능하다. 음악적인 요소, 연행성이라는 표현 동작적인 요소, 그리고 그 속에 민중은 물론 지배층에게도 공감을 얻었던 보편적 정서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다.

고려속가의 성격을 제7차 문학 교육의 목표 및 내용과 결부지어 본다면, 문학 작품의 학습자 중심의 비판적, 창의적인 수용은 물론, 실제 삶과 연관지어 내면화하고 창조적으로 재구성하는 문화적 맥락에서의 작품의 수용 및 창작에 효과적일 것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문학도 하나의 문화임을 깨닫게 되고, 나아가 한국 문학의 가치와 전통을 이해하여 ‘문학 문화 발전’이라는 문학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어질 III장에서 구체적 교육 방안을 마련해 보면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그러므로 고려속가는 전통과 민족 보편의 정서를 담고 있다는 문학사적 가치와 함께 제7차 교육 과정의 목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교육적 가치 또한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문학 교육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본다.

18) 김채덕, 『고려노래 속가의 사회배경적 연구』, 국학자료원, 2001, p22~25.

Ⅲ. 고려속가 교육 방안

1. 고려속가 작품의 ‘문학’ 교과서 수록 양상 검토

제7차 교육 과정은 수준별 교육 과정 운영을 지향한다. 그 하위 교과인 국어과의 교육 과정은 그 지향점에 켜를 같이 하여 ‘국민 기본 공통 교육 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 기본 공통 교육 과정’은 1학년부터 10학년(고등학교 1학년)까지 적용되는 교육 과정으로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 과정에 해당되며, ‘선택 중심 교육 과정’은 11학년과 12학년(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에서 적용된다. ‘선택 중심 교육 과정’에서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인 ‘국어생활’과 ‘심화 선택 과목’인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7차 교육 과정에서는 학습자의 적성, 흥미, 진로 등에 적합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게 하는 방향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선택 과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습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줌과 동시에 선택한 과목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 중 ‘문학’ 과목은 ‘국민 기본 공통 교육 과정’의 ‘국어’ 과목의 문학 영역의 내용을 심화·확충시킨 것으로, 학습자의 선택에 따라 이수할 수도 있고 이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심화 과목인 ‘문학’ 과목에서 고려속가 작품은 어떠한 교육 내용의 체계 속에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제7차 교육 과정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고려속가>

	교 학 사 김	교 학 사 구	금 성	대 한 교 과 서	두 산 동 아	디 담 돌	문 원 각	민 중 서 림	블 랙 박 스	상 문 연 구 사	중 앙 교 육	지 학 사 권	지 학 사 박	천 재 교 육	청 문 각	케 이 스	태 성	형 설 출 판 사	합 계
정읍사	○				○	○	○				○		○	○		○	○	○	10
가시리	○	○	○	○		○	○		○	○		○		○	○	○	○		13
서경별곡	○				○			○				○	○						5
동동	○		○								○	○				○			5
청산별곡		○					○								○		○	○	5
정석가														○					1
만전춘							○										○		2
쌍화점				○													○		2
상저가							○												1
사모곡			○																1
합계	4	2	3	2	2	2	5	1	1	1	2	3	2	3	2	3	5	2	

위의 표는 현행 교육 과정의 검인정 ‘문학’ 교과서 18종에 수록된 고려속가 작품들이다¹⁹⁾.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가시리」가 13편으로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고, 「서경별곡」, 「동동」, 「청산별곡」이 각각 5편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정읍사」는 교과서에는 고려 시대의 노래로 다루고 있지 않으나, 고려속가는 고려 시대 궁중속악의 가사로 쓰였던 노래들의 명칭이므로 본 고에서는 고려속가에 포함시켜 살펴보도록 하겠다. 「청산별곡」은 이미 ‘국민 기본 공통 교육 과정’인 ‘국어(상)’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논의의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하겠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논의의 대상은 현행 검인정 18종 ‘문학’ 교과서에서

19) 여기서는 소단원으로 제시된 작품뿐만 아니라 ‘학습 활동’에서 제시되는 작품들까지 모두 포함시켰다.

가장 많이 수록된 작품 「가시리」, 「서경별곡」, 「동동」, 「정읍사」에 국한시킨다. 그리고 이들 고려속가에 나타난 정서와 음악, 연행성 등 문화적 요소들을 살펴보고, 각 요소를 중심으로 현행 교육 과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문학’ 과목의 내용 체계를 바탕으로 현행 ‘문학’ 교과서에서 고려속가는 어떤 대단원에 속하여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검인정 11종²⁰⁾ ‘문학’ 교과서 고려속가 수록 현황>

작 품	대 단 원 명	출 판 사
정 읍 사	Ⅱ. 문학의 수용과 창작 방법	디딤돌(상)
	Ⅵ. 한국 문학의 특질과 흐름	천재교육(하)
	Ⅱ. 문학의 수용과 창작	두산동아(상)
	Ⅲ. 문학의 수용과 창작(2)	케이스(상)
	Ⅱ. 한국 문학의 특질과 흐름	민중서림(하)
	Ⅱ. 한국 문학의 흐름	중앙교육(하)
가 시 리	Ⅲ. 서정문학의 수용과 창작	금성(상)
	Ⅱ. 문학 작품의 수용과 창작(2)	디딤돌(하)
	Ⅱ. 시의 수용과 창작	천재교육(상)
	Ⅱ.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	교학사(하)
	Ⅲ. 갈래별 수용과 창작	상문연구사(상)
	Ⅴ. 문화의 흐름과 문학의 양상	케이스(하)
	Ⅷ. 한국 문학의 특질과 흐름	블랙박스(하)
	Ⅱ. 한국 문학의 특질과 흐름	민중서림(하)
서경 별곡	Ⅴ. 문화의 변동과 문학의 대응	두산동아(하)
	Ⅱ. 한국 문학의 특질과 흐름	민중서림(하)
동동	Ⅲ. 민족 문학의 흐름	금성(하)
	Ⅱ. 한국 문학의 흐름	중앙교육(하)

20) 현재는 18종의 ‘문학’ 교과서가 있지만, 여기서는 검인정을 먼저 받은 11종(교학사, 금성, 두산동아, 디딤돌, 문원각, 민중서림, 블랙박스, 상문연구사, 중앙교육, 천재교육, 케이스)을 중심으로 수록 현황을 도식화했다.

현행 18종 ‘문학’ 교과서의 목차를 살펴보면, ‘문학’ 과목의 내용 체계인 ‘(1) 문학의 본질’, ‘(2) 문학의 수용과 창작’, ‘(3) 문학과 문화’, ‘(4) 문학의 가치화와 태도’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려속가는 ‘문학’ 과목의 내용 체계 중 주로 ‘(2) 문학의 수용과 창작’, ‘(3) 문학과 문화’라는 영역을 바탕으로 하는 대단원에 수록되어 있다. 이는 제7차 교육 과정에서 고려속가를 ‘문학의 수용과 창작’, ‘한국 문학의 특질’과 ‘문학 문화의 특성’을 알 수 있는 작품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2) 문학의 수용과 창작’ 영역은 수용과 창작의 원리를 이해하고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여 그 가치를 자신의 삶과 연관지어 내면화하는 것을 중점에 둔다. 그리고 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비판적이고 창조적으로 재구성해 보는 문학 활동을 통한 문학 작품의 내면화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3) 문학과 문화’ 영역은 국어 문화의 관점에서 문학을 수용, 창작하며 그 속에서 문학 소통의 규칙과 관습, 한국 문학의 전통을 이해하는 것을 중점에 둔다. 그리고 문학 작품을 다른 매체로 전환하거나 교과서를 벗어나 새로운 매체를 활용함으로써 문학이 현대 사회의 다양한 매체와 결합하여 수행되는 양상을 이해하도록 한다. 이는 나아가 문학의 가치를 파악하고 문학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태도를 기르는 바탕이 되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문학 교육에서 수용과 창작을 통한 다양한 시각의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문학을 텍스트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접 예술과의 관계 속에서 수용과 창작 활동을 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교수-학습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본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고려속가의 문화적 접근이 문학 교육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지 살펴보고 작품 속에 내재된 문화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구체적 교육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고려속가 교육의 문화적 접근

고려속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려 민족 보편의 정서를 담아내고 있는 문학 작품이다. 그리고 고려 시대의 궁중속악으로서 악기의 연주, 노래, 춤과 함께 연행되었다는 점에서 다양한 시각의 접근 방법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7차 교육 과정에서 문학 교육은 ‘창의적인 국어 사용’이라는 국어과 교육의 과제이자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작품 중심의 교육이 아닌 사고와 표현, 문화를 고려하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열린 시각에서 문학을 다양한 매체와 구체적 활동이 통합된 ‘포괄적 문화 현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문학의 수용은 작품의 감상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함으로써 문학 활동의 실제 능력을 기르는 것까지를 의미한다. 즉 내용과 형식, 표현을 분석하고, 작품을 다양한 관점에서 수용하며 이를 다시 자신의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다른 사람과 비교, 공유하는 활동을 거치는 것이다. 그리고 작품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작품 속에 나타난 상황이나 정서 등을 자신의 삶과 연관지어 내면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따라서 고려속가는 시가 장르로서 시적 화자의 응축된 정서와 궁중속악으로서 당대의 문화적 요소가 잘 담겨 있기 때문에, 학습자는 그 정서와 문화적 요소를 내면화하는 수용·창작 활동을 통해 문학 능력을 신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행 교육 과정은 문학을 문화로 바라보며 생활 문화와는 다른 예술 문화라는 관점²¹⁾을 바탕으로 다양한 경험과 매체를 문학 활동과 연결시키고자 한다. 이를 통해 문학이 음악, 미술, 연극·영화, 무용, 건축을 비롯하여 다양한

21) 교육인적자원부(2001), 앞의 책, p313.

인접 예술, 사회·문화 현상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고려속가는 궁중속악으로서 음악과 무용 등의 예술 형태로 향유되는 등 다원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인접 예술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현행 교육 과정에서 제시한 문학 교육의 방향을 고려한다면 고려속가는 그 목표와 내용에 부합하는 부분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고려속가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사랑과 이별이라는 보편적인 정서는 현대에도 여러 예술 분야의 주제로 자주 거론되는 부분이다. 이 보편적 정서를 매개로 한다면 학습자들이 고전 문학 작품에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며, 전통으로서의 우리 민족의 보편적 정서와 당대인의 삶의 모습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자신의 삶에 비추어 봄으로써 민족 보편의 정서가 갖는 현대적 의미도 스스로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고려속가는 속악의 가사인 만큼 음악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고려속가의 교수·학습 내용은 고려속가가 속악의 가사이며 고려 시대에는 악기의 반주와 함께 음악으로 향유되었던 작품임을 학습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한 지식적 측면에서 전달하기 보다는 고려속가에 담긴 정서의 내면화와 함께 여러 매체를 통해 감상하며 당대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도록 한다면 좀더 학습자들이 고려속가의 장르적 특징과 고려 시대의 문화를 이해하는 효과적일 것이라 본다.

또, 음악의 연주와 함께 춤과 노래가 함께 연행되었음을 고려하여 고려속가의 연행적 성격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우리 문화의 일부로 자리잡아 왔는가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에게 당대의 문학 문화를 비롯한 인접 예술까지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이상 살펴본 고려속가의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잘 살려 지도한다면 고전 문학 전반에 대한 거부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다양한 접근 방식과 창작 활동을 통해 문학에 대한 가치를 내면화 할 수 있고, 나아가 문학 활동에 능동적

인 참여 태도를 기를 수 있을 것이다.

3. 고려속가의 문화적 요소

고려속가는 궁중속악으로서 임금 앞에서 악기의 연주에 맞춰 연행되던 것이기에 다양한 예술 장르가 함께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다양한 시각의 접근이 가능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많은 문화적 요소²²⁾ 중에서 고려속가가 뛰어난 문학적 가치로 인정받고 있는 정서적 측면과 속악의 가사라는 점에서 음악적 측면, 궁중 속악으로서 악기의 반주에 맞춰 노래와 춤이 함께 어우러져 향유되었다는 점에서 표현 동작적 측면,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고려속가의 교육적 효과를 살펴보려고 한다.

22) 문화는 그 의미가 아주 광범위하기 때문에 하나로 정의하기는 힘든 개념이긴 하지만, 그것이 공유되고 학습되고 축적되며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형태를 띠며 항상 변한다는 특징을 갖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레스리 A. 화이트는 ‘문화란 상징 행위에 의거한 사물과 사건들에 붙인 이름’으로, 그 사물과 사건은 ‘관념, 신앙, 태도, 감정, 연출, 행위유형, 관습, 규약, 제도, 예술작품 및 형식, 언어, 도구, 가구, 기계, 그릇, 장식품 呪物, 呪文 등을 포함한다’고 정의한다. (『문화의 개념』, 일지사, 1989, p132~177참고)

물론 고려시대의 모든 문화가 고려속가 작품 안에 형상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잘 표현되고 있는 요소들은 음악과 무용, 문학 텍스트에 담긴 정서라는 생각이다. 그래서 정서적 요소, 음악적 요소, 표현동작적 요소로 구분지어 살펴보려고 한다.

1) 정서적 요소

고려속가에는 우리 고유의 언어가 만들어내는 미학과 함께 남녀간의 사랑과 이별, 그리움 등에 대한 정서가 가식 없이 허심탄회하게 잘 드러나 있다. 이러한 사랑에 대한 정서를 ‘이별의 정한’, ‘기다림’으로 나누어 작품 속에 나타난 정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이별의 정한(情恨)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버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太平盛大(대평성대)

날러는 엇디 살라호고
버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太平盛大(대평성대)

잡스와 두어리마는
선호면 아니 올세라
위 증즐가 太平盛大(대평성대)

설은 님 보내옵노니 나는
가시는 듯 도셔 오쇼셔 나는
위 증즐가 太平盛大(대평성대)

「가시리」는 이별을 앞둔 여인의 애절한 정한을 토로한 민요풍의 노래로 그 정서는 우리 시가의 하나의 원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1연에서 화자는 임이 나를 버리고 가시지만 믿지 못하겠다는 듯 되물으며 이별을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2연에서는 임이 떠난다면 자신은 절망적일 것이라 생각하며 버림받는 슬픔과 안타까움이 절

박하게 그려지고 있으며, 3연에서는 행여 내가 입을 붙잡아 마음이 향해 돌아오지 않는 것은 아닌가 염려하여 붙잡고 싶은 마음을 자제하고 체념하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난다. 그리고 마지막 4연에서는 초연하게 입을 보내드리고 떠난 입이 다시 돌아오기를 염원한다.

보내기는 서럽지만 그 서러운 마음을 깊숙이 삼키며 ‘가시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와 달라’는 화자의 애원은 이별 당하는 자의 마음 가운데서도 가장 절실하고 간곡한 심정일 것이다. 이별 앞에서 애절한 슬픔과 입에 대한 원망을 밖으로 표출하지 않고 안으로 삭이며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는 모습은 평생을 참으며 살아가는 한국 여인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의 시적화자가 표출하고 있는 절제된 슬픔의 정서를 통해 우리는 미학적 감동과 한국적 정서를 느끼는 것이다.

「가시리」와 같은 절제된 이별의 아픔과 한은 고대 가요인 「공무도하가」에서도 나타나며, 김소월의 「진달래꽃」, 한용운의 「임의 침묵」, 「알 수 없어요」 등 현대시 작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또, 우리 민족의 정서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민요 「아리랑」에서도 사랑하는 입을 붙잡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야 하는 절실한 여인의 심정이 드러난다. 이 작품들을 통해 이별의 슬픔, 곧 정한(情恨)이라는 정서는 고대 가요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시가에 면면히 흐르는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정서로 자리잡아 왔음을 알 수 있다.

西京이 아즐가 西京이 서울히 마르는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령디리
 닷곤디 아즐가 닷곤디 쇼성경 고₄마른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령디리
 여히므론 아즐가 여히므론 질삼뵈 버리시고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령디리
 괴시란디 아즐가 괴시란디 우러곰 좇니노이다.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령디리

구스리 아줄가 구스리 바회예 디신돌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긴히쑤 아줄가 긴히쑤 그츠리잇가 나눈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즘른 히를 아줄가 즘른 히를 외오곰 녀신돌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信잇돈 아줄가 信잇돈 그츠리잇가 나눈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大同江 아줄가 大同江 너븐디 몰라서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비내여 아줄가 비내여 노흔다 샤공아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네가시 아줄가 네가시 림난디 몰라서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널비예 아줄가 널비예 연즌다 샤공아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大同江 아줄가 大同江 건넌편 고줄여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비타들면 아줄가 비타들면 것고리이다 나눈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서경별곡」은 「가시리」와 함께 대표적인 이별 노래로 자주 거론되는 작품으로, 서로 다른 민요를 궁중의 악곡에 맞추는 과정에서 각기 별개의 노래를 맞추어 합친 것이라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그래서 작품의 내용을 살펴보면 작품의 통일성이 결여되어 보이기도 한다. 비록 각 연의 상황, 정서 등의 변화가 급격하기는 하나 그것이 임파의 이별에서 나타나는 화자의 정서라는 것에 유의한다면 이별의 정한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묶일 수 있을 것이다.

노래의 내용을 살펴보면, 1연에서는 화자가 임파의 이별하느니 차라리 삶의 터전인 서경과 길쌈하던 베를 버리고 임을 따라가겠다는 적극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임이 사랑만 해주신다면 울면서 따르겠다는 사랑에 대한

절박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2연에서는 이별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끈’으로 비유되는 입에 대한 영원불변의 사랑을 노래한다. 그러나 이별의 상황에 있음을 생각한다면 강한 사랑의 신념과 확신 이면에 임이 떠나는 것에 대한 원망과 불안감 등이 내재되어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3연에서는 입과의 이별 상황이 그대로 연출된다. ‘대동강’이라는 단절의 이미지와 거리감에서 오는 이별의 극적 상황에서 화자는 입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제3자인 사공에게 표출한다. 그렇게라도 입을 붙잡고 싶은 마음을 표출한 것이다. 이러한 화자의 심정은 점점 더 극에 달해 ‘꽃’에 비유되는 입의 또 다른 사랑에 대한 질투의 정서로 치닫게 된다.

이렇듯 「서경별곡」에서 시적화자는 「가시리」의 시적화자보다 걱정적이라 할 만큼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다. 「가시리」에서 화자가 침착하고 여성스러운 소극적 처신을 보였다면, 「서경별곡」의 화자는 똑같은 이별 상황이지만 입을 따르겠다는 다짐과 변치 않는 믿음을 노래하며, 끝부분에서는 입에 대한 원망과 체념에서 나아가 이를 삭이지 못하고 결국 질투의 여심로 끝을 맺는 적극적이고 걱정적인 정서의 변화를 보인다.

이를 통해 사랑하는 입과의 이별이라는 같은 상황 속에서 두 작품에 나타난 시적화자의 정서와 그 표현 양상의 비교가 가능할 것이며, 이별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통해 그 현대적 의미 또한 학습자들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으리라 본다.

(2) 기다림

德으란 곰빅에 받좁고, 福으란 림빅에 받좁고,
德이여 福이라 호놀, 나승라 오소이다.
아으 動動다리.

正月스 나릿 므른 아으 어저 녹저 호논디,
누릿 가온디 나곤 몸하 호올로 널서.
아으 動動다리.

二月스 보로매 아으 노피 현 燈스불 다호라.
萬人 비취실 즈시샷다.
아으 動動다리.

三月 나며 開흔 아으 滿春 돌윳고지여.
늑미 브를 즈슬 디너 나샷다.
아으 動動다리.

四月 아니 니저 아으 오실서 곳고리새여
므슴다 錄事니몬 넷 나를 닛고신더.
아으 動動다리.

五月 五일에 아으 수릿날 아춤 藥은,
즈른 힐 長存호살 藥이라 반즙노이다.
아으 動動다리.

六月스 보로매 아으 별해 브론 빗 다호라.
도라보실 니를 적곰 좇니노이다.
아으 動動다리.

七月스 보로매 아으 百種排호야 두고,
니를 혼디 녀가져 願을 비습노이다.
아으 動動다리.

八月스 보로몬 아으 嘉俳 나리마론
니를 피서 녀곤 오늘낫 嘉俳샷다.
아으 動動다리.

九月 九일에 아으 藥이라 먹는 黃花
고지 안해 드니, 새서 가만호애라.
아으 動動다리.

十月애 아으 저미연 브룻 다호라.
것거 브리신 後에 디니실 혼 부니 업스샷다.

아으 動動다리.

十一月入 봉당 자리에 아으 汗衫 두피 누워
슬흘스라운더 고우닐 스식옴 널서.
아으 動動다리.

十二月入 분디남자로 갓끈, 아으 나을 盤잇 저 다호라.
니피 알뵈 드러 열이노니, 소니 가재다 므릅노이다.
아으 動動다리.

「동동」은 어석과 노래의 성격 규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송도지사로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동동」이 달거리 형식이라는 점, 매 연에서 세시풍속과 그에 따른 정서를 노래했다는 점에서 달거리 민요와 아주 흡사하므로 「동동」 역시 민간의 노래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랫말에서 잘 드러나는 시적화자의 임에 대한 기다림과 그리움의 정서를 간과한 채 송도지사로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²³⁾.

「동동」은 우리 고유의 세시 풍속을 달마다 제시하며 이를 임의 부재와 연결시키고 있는데, 떠나간 임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는 기다림과 시적화자의 심적 고통이 각기 그 충위를 달리하며 12달에 걸쳐 잘 표출되고 있다. 달거리 민요의 형식 속에 우리 고유의 생활 양식은 물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연모라는 집단적이고 보편적인 정서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노래의 내용을 살펴보면, 서연(序聯)은 임에게 영원한 자연의 덕과 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어지는 12달의 내용과 관련성 없이 다분히 독립적이다²⁴⁾. 하지만 전체의 의미와 관련을 지어 본다

23) 박노준, 조동일, 윤성현 등은 「동동」의 성격을 순수서정시가로 보고 있다.

박노준 「<동동>의 한 이해」, 『고려가요의 연구』, 새문사, 1990.

조동일, 『한국시가의 역사의식』, 문예출판사, 1993, p110.

윤성현, 「고려 속요의 서정성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24) 서연의 내용은 「동동」이 궁중 속악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원래의 노래에 덧붙여진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면 사랑하는 임에 대한 송도(頌禱)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월연에는 냇물은 얼었다 녹으며 변화하는데, 화자 자신은 임 없이 홀로 살아가고 있어 고독하다는 마음을 내적 독백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자연물과의 대비 속에 자기 연민의 정서를 담아내고 있는데, 이 연에 나타나는 임의 부재로 인한 고독한 연모(戀慕)의 마음은 한 해의 숙명적인 고독을 예측한 것으로 볼 수 있다²⁵⁾.

2월연에는 2월 보름 연등 행사 중 높이 달아 놓은 등불을 보며 그리운 임을 이상적이고 우상과도 같은 동경의 대상으로 그리고 있다. 결에는 없지만 사랑하는 임에 대한 송축과 연모의 마음을 ‘등불’이라는 대상에 비유하여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3월연에는 2월과 마찬가지로 ‘늦봄의 진달래꽃’에 임을 비유하여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의 아름다운 모습을 송축하고 있다.

4월연에는 피꼬리가 잊지 않고 찾아오는 것에 대비되어 기다려도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과 나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슬픔의 목소리가 드러나고 있다.

5월연에는 단오날 약을 바치며 장수를 기원하는 민족의 세시 풍습이 나타난다. 화자는 단오날 아침에 약을 바쳐 옆에 없는 임의 장수와 안녕을 빌며 이 사랑이 영원하길 기원하고 있다.

6월연에는 보름날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으며 액운을 씻어내는 유두일(流頭日)의 풍습이 나타나고 있다. 화자는 ‘별해 브론 빗’에 자신을 비유하여 처지를 한탄하며 혹여 돌아볼 님을 기다리고 좇겠다는 애절한 사랑을 노래한다.

7월연에는 백종날(百種)의 풍습이 나타나는데, 이 날은 죽은 이를 위해

25) 임기중, 「續高麗歌謠 動動攷」, 『한국학연구』 1, 동국대학교한국학연구소, 1976, p81.

채(齋)를 올리기도 하고, 남녀가 모여 음식을 갖추어 두고 노래하며 즐겁게 놀기도 하는 날이다. 화자는 재를 올릴 때, 돌아오지 않는 임을 그리워하며 임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을 빌고 있는 것이다.

8월연에는 온 마을이 한가위를 맞아 풍성하고 즐거운 분위기지만 그것도 임과 함께 할 때라야 의미가 있음을 깨닫는 외롭고 쓸쓸한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다.

9월연에는 9일 중양절(重陽節)의 풍습이 나타나는데, 이 날은 노란 국화로 전을 부쳐 먹기도 하고 산에 올라 국화주를 마시기도 하는 날이다. 그러나 국화꽃이 집안에 피어도 임이 계시지 않기에 화자는 여전히 고요하고 쓸쓸한 마음을 노래한다.

10월연에는 풍습은 나타나지 않고 임에게 잊혀진 화자 자신의 처지를 ‘저미연 브룻’에 빗대어 한탄하고 있으며, 11월연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봉당자리에 누워 차고 거친 한삼을 덮고 누워있는 화자의 모습에서 임과 헤어져 있는 슬픔과 외로움이 극대화되고 있다.

12월연은 분지 나무로 힘들여 젓가락을 만들어 님을 위해 정성스럽게 차린 소반 위에 얹었더니, 임이 아닌 다른 이가 그것을 가져간다는 내용이다. 임을 그렇게 연모했음에도 마음도 없는 이에게 가게 된 화자의 애달픈 심경이 잘 드러나고 있다. 비록 몸은 떠나더라도 그 마음은 여전히 변하지 않을 것임을 비극적인 결말로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13연에 걸친 긴 노래 속에는 임과 이별한 고통과 외로움에서 오는 정한을 임에 대한 불변의 사랑과 기다림으로 참아내는 여인의 정서가 애절하게 그려져 있는 것이다. 임이 돌아오지 않아도 끝까지 참고 기다라는 모습은 예로부터 전해 오는 망부석 설화의 여인과 많이 닮아 있다.

前腔 달호 노피곰 도드샤
 어귀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귀야 어강도리
小葉 아으 다롱디리.
後腔全 저재 너리신고요.
 어귀야 존 디롤 드디올세라.
 어귀야 어강도리
過篇 어느이다 노코시라.
金善調 어귀야 내 가는 디 점그롤세라.
 어귀야 어강도리
小葉 아으 다롱디리

「정읍사」는 원래 백제의 노래였으나 고려 시대 궁중 속악으로 편입되어 불려진 노래이다. 이 노래는 다른 고려속가와 비슷한 체재로 「악학궤범」에 그 가사가 실려 전하므로, 고려속가와 동일한 성격으로 취급되고 있다. 그리고 『고려사』 악지에는 이 노래에 대한 배경설화가 전하는데²⁶⁾, 행상을 나간 남편을 애타게 기다리는 부인의 마음을 노래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지헌영은 이 노래를 음설지사로 보고 있으나 조선 초 세종·세조 때 궁중악의 개편에서 제외되었고, 성종대에도 음률이 맞는 「오관산」으로 대신 하였을 뿐, 음설스럽다는 언급은 없기 때문에 그의 주장과 같이 「정읍사」를 음설스러운 노래로 보기에 는 무리가 있다²⁷⁾.

이 노래는 일상적이고 투박한 언어로 달을 바라보며 남편이 무사히 돌아 오기를 비는, 개인적 서정이라기보다 민중의 보편적 정서를 반영한 민요적

26) 『고려사』악지 권2 삼국속악조.

“정읍은 전주(全州)의 속현이다. 정읍 사람이 행상을 나가서 오래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그 처가 산 위의 돌에 올라가 바라보면서 남편이 밤길을 가다가 해를 입을까 두려워함을 진흙물의 더러움에 부쳐서 이 노래를 불렀다. 세상에 전하기는 고개에 올라가 남편을 바라본 돌이 있다고 한다.

(井邑全州屬縣 縣人爲行商久不至 其妻登山石以望之 恐其夫夜行犯害 托泥水之汚以歌之 世傳有登帖望夫石云)”

27) 김쾌덕(2001), 앞의 책, p268~272.

성격의 노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정읍사」에서 ‘달’은 남편의 무사안일을 비는 아내의 사랑을 의미하기도 하며, 초자연적인 존재로서 남편을 지켜주는 존재이기도 하다. 작품 전반부에는 달의 보호 아래 남편을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과 그리움이 잘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남편이 오지 않자 초조한 마음으로 위험에 빠지진 않았을까 걱정하며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여인의 순박한 기다림의 정서가 애절하게 그려지고 있다.

「동동」과 「정읍사」에 나타나는 기다림이라는 화자의 정서는, 대상은 다를지라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일상 생활에서 자주 체험하게 되는 정서이다. 그러므로 작품의 이별 상황을 재현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화자의 정서를 내면화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임을 기다리는 여인의 모습에서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정서의 현대적 의미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음악적 요소

고려속가는 궁중에서 교방기녀들이 악기를 연주하며 불렀던 속악의 가사임을 앞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고려속가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랫말과 음악을 함께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는 원래 음악으로 향유되던 것을 그 가사만을 떼어내어 교육하는 것은 고려속가의 온전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최대한 고려속가가 갖는 특성을 잘 살리고 학습자들에게도 올바른 우리 문화를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음악적인 접근 방법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고려속가의 음악적인 요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고려 시대는 대악서(大樂署)나 관현방(管絃房)과 같은 음악 관서가 있어

여기에 많은 악사(樂師)나 교방기녀(敎坊妓女)들이 소속되어 속악은 물론 당악(唐樂)이나 아악(雅樂)을 연주하거나 부르기도 했다²⁸⁾. 교방기녀들은 송에서 보내온 교방악사(敎坊樂師)들의 지도에 따라 송의 교방악을 익혀 궁중의 연향 자리에서 연주를 했고, 속악의 경우는 직접 창작하거나 지방의 민요를 재편하여 속악에 편성시켰다. 이러한 까닭에 고려속가는 민요적인 성격을 갖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고려속가는 궁중 속악의 체제와 품격에 맞게 재구성되었으므로 형식적인 면에서 민요와 크게 다르다.

그리고 『고려사』 악지 속악조에는 속악에 쓰인 노래들의 명칭과 내용, 속악의 연주에 쓰인 악기의 명칭이 전하며, 특히 「동동」과 「정읍사」는 가무악으로 춤과 함께 연행되던 모습도 자세하게 알 수 있다. 이를 보더라도 고려속가는 악기의 반주를 동반한 음악의 형태로 존재하고 향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조선 초기 문헌인 『세종실록(世宗實錄)』 악보, 『시용향악보(時用鄉樂譜)』, 『대악후보(大樂後譜)』 등에는 몇몇 작품의 악보가 전하므로²⁹⁾ 고려속가가 궁중의 속악으로서 악기의 반주에 맞추어 향유되던 모습을 구체적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대악후보』와 『시용향악보』에는 속악의 악조명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 주로 sol 선법인 평조와 la 선법인 계면조가 사용되고 있다. 그 예로 『대악후보』에서는 「동동」, 「정읍」, 「자하동」가 계면조(界面調)로 전하며, 『시용향악보』에서는 「사모곡」, 「동동」, 「자하동」 「정읍」은 계면조, 「귀호곡

28) 김쾌덕(2001), 앞의 책, p21.

29) 『세종실록(世宗實錄)』 악보에는 속악과 아악의 악곡을 싣고 있는데, 「만전춘」의 악보가 전한다. 그리고 『시용향악보』에는 「동동」, 「서경별곡」, 「풍입송(風入松)」, 「야심사(夜深詞)」, 「귀호곡(가시리)」, 「쌍화곡(쌍화점)」, 「사모곡」, 「정석가」, 「청산별곡」 등이, 『대악후보』에는 「동동」, 「서경별곡」, 「정읍」, 「진작」, 「한림별곡」, 「자하동(紫霞洞)」, 「이상곡」, 「만전춘」, 「쌍화점」, 「북전(北殿)」 등의 악보가 전한다.

」, 「서경별곡」, 「쌍화곡」, 「야심사」, 「청산별곡」, 「풍입송」은 평조(平調)로 기록되어 전한다. 이렇게 속악의 악조가 이론적으로 정립되었음은 『악학궤범』 권1 ‘악조총의(樂調總義)’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또, 속악의 음계는 ‘궁(宮)’을 중심음으로 하여 궁보다 높은 음들은 上一, 上二, 上三, 上四, 上五의 순서로 표시하고, 궁보다 낮은 음들은 下一, 下二, 下三, 下四, 下五의 순서로 표시한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서양의 음과 함께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평조와 계면조 선법의 음고³⁰⁾>

	下五	下四	下三	下二	下一	宮	上一	上二	上三	上四	上五
평조	sol	la	do	re	mi	sol	la	do	re	mi	sol
계면조	la	do	re	mi	sol	la	do	re	mi	sol	la

이처럼 ‘궁(宮을)’ 중심으로 한 속악의 음계는 평조나 계면조 모두 반음을 포함하지 않는 무반음 5음음계(unhemitonic pentatonic scale)³¹⁾로 연주되었다.

그리고 『대악후보』, 『시용향악보』 등에 전하는 악보를 살펴보면, 속악은 ‘고(鼓)·요(搖)·편(鞭)·쌍(雙)’의 장단(長短)을 기본 구성 단위로 하며 보통은 몇 개의 행강(行綱)³²⁾으로 구성된다. 악곡에 따라서는 장단 단위로

30) 김영운, 「고려가요의 음악형식 연구」, 『한국중세사회의 음악문화-고려시대편』, 민속원, 2002, p14.

31) 송방송, 「고려 향악의 악조에 대한 음악사적 고찰」, 『한국중세사회의 음악문화-고려시대편』, 민속원, 2002, p382.

32) 여기서 행강은 정간보(井間譜)에서 16정간(井間) 6대강(大綱)으로 된 세로 줄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이혜구의 『정간보의 정간, 대강 및 장단』(세광음악출판사, 1987) 등을 참고하도록 한다.

가락이 짜여진 경우도 있어, 장단이 가락의 한 단위가 되기도 한다.

이렇듯 고려속가는 노랫말과 함께 몇몇 작품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음계, 음조, 장단까지 알 수 있는 악보의 형태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또, 고려속가의 음악 형식을 알 수 있는 부분 중 하나는 ‘여음(餘音)’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여음은 노랫말에서의 ‘아으 동동다리’, ‘위 증줄가 태평성대’ 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악곡에서 노래가 쉬는 부분에 해당하는 전주·간주·후주를 가리키는 말로, 한 악곡에서 각각의 부분들을 연결시키거나, 한 악곡에서 후주의 역할을 하는 데 주로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³³⁾.

그리고 고려속가의 악보에는 ‘강(腔)’과 ‘엽(葉)’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강’은 한 악곡의 본체 부분을 의미하고 ‘엽’은 지엽 부분을 의미한다. 이것은 고전시가에서 보편적으로 내재된 ‘전대절-후소절’ 구조의 음악적 인식을 말하는데³⁴⁾, 특정한 악곡의 형식이 아니라 악곡 구성 단위간의 상대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

대표적인 예로 『악학궤범』에 전하는 「정읍사」의 가사에는 ‘전강(前腔)’, ‘소엽(小葉)’, ‘후강(後腔)’, ‘소엽(小葉)’, ‘과편(過篇)’, ‘금선조(金善調)’, ‘소엽(小葉)’ 등의 용어가 순서대로 나타난다. 그 외, 「정과정」, 「이상곡」, 「사모곡」, 「만전춘」, 「처용가」에도 ‘강’과 ‘엽’이 나타나는데, ‘엽’은 악곡에서 여음, 간주, 후렴 등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전강·후강과 동격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 작품들은 다른 형태의 작품들보다 여음의 횟수가 많다. 여음이 많다는 것은 이 악곡들이 정재(呈才) 등 의식 행사에서 악기 반주와의 조화를 위해 구분된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고려속가를 전하는 문헌들은 고려 시대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모

33) 김영운(2002), 앞의 논문, p21.

34) 양태순, 『고려가요의 음악적 연구』, 이회문화사, 1997, p242.

두 조선 초기 사대부들에 의해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고려속가는 그들의 고려속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유학자로서의 의식이 더해져 여러 차례 개편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태종대에는 궁중악을 왕에 대한 송축의 용도로 사용하면서 고려속가에 대한 일차적 검열이 이루어지고, 세종대에는 정간보가 만들어져 당시 향유되던 음악들이 악보로 전하게 된다. 그리고 성종대에 이르면 『악학궤범』이 편찬되어 고려속가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속악의 가사가 전하지 않는다거나 속악의 명칭이 바뀐다거나 하는 개편이 이루어지지만 그 곡조는 남아 여러 문헌에 전하고 있다³⁵⁾. 또 표현 동작적 요소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동동」과 「정읍사」는 『악학궤범』 향악정재조에 「아박정재」와 「무고정재」로 전한다.

이렇듯 조선 시대 향악의 개편 과정에서 고려속가가 유학자들의 유학사관에 의해 많은 부분이 바뀌긴 했으나, 궁중에서 꾸준히 향유되었던 것은 고려속가가 효용적인 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사가 있는 음악의 형태로 향유되던 고려속가를 음악적인 부분만 무시하고 그 가사만으로 고려 시대의 문학이며 문화라 가르치는 것은 올바른 문학 교육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고려속가를 문학적 텍스트로만 접근하는 방식을 벗어나 현전하는 문헌과 자료들을 활용하여 학습자들이 고려속가의 온전한 모습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고려속가를 당대의 모습 그대로 재현하기란 힘들겠지

35) 「청산별곡」의 곡조는 「납씨가(納氏歌)」와 정대업(定大業)의 「휴명(休命)」에 차용되었고, 「서경별곡」은 「정동방곡(靖東方曲)」과 정대업의 「영관(永觀)」에 차용되었다. 또 「만전춘」은 정대업의 「혁정(赫整)」에 차용되었고 「풍입송」은 「유황곡(維皇曲)」과 보태평(保太平)의 「융화(隆化)」에 일부 차용되었다.

(장사훈, 『국악논고』, 서울대출판부, 1966. 참고)

만, 국악학에서도 고려속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작품들은 현재까지도 연주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료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학습자들도 고전이라는 거부감에서 벗어나 친숙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고려속가의 특징을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3) 표현 동작적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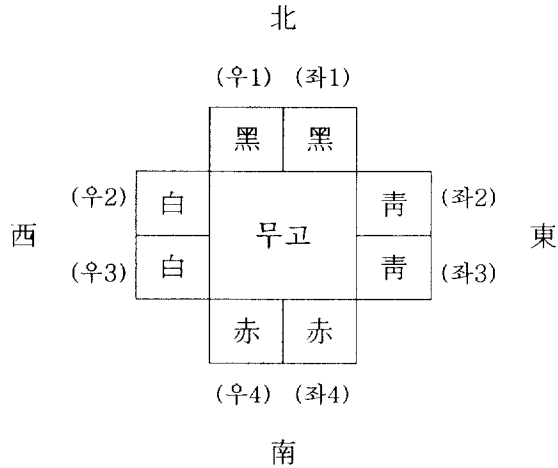
음악적 요소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려속가는 궁중의 음악의 반주에 맞춰 교방기녀들이 춤을 추기도 했는데, 『고려사』 악지 ‘用俗樂節度’에는 속악이 왕조의 제례는 물론 왕비, 왕태자, 왕희의 책봉, 연등회와 팔관회 등에 음악 또는 춤도 함께 연행되었음을 전한다.

특히, 『고려사』 악지의 「정읍사」와 「동동」, 「무애(無導)」, 『악학궤범』의 향악정재조에 「아박정재³⁶⁾(동동)」, 「무고정재(정읍사)」 등에는 여러 속악의 자세한 연행 순서와 동작, 의상, 악기 등이 제시되고 있다.

먼저 「정읍사」를 살펴보자. 「정읍사」는 『고려사』 악지에는 무고(舞鼓)조에 전하며 『악학궤범』의 「무고정재(舞鼓呈才)」에는 그 배열도도 함께 전한다.

36) ‘동동정재’로 불리던 것이 조선 초 『악학궤범』이 편찬되면서 ‘아박정재’로 명칭이 바뀐다.

< 무고정재 - 처음 들어올 때 배열 >



북	북	북	북	북	북	북	북
채	채	채	채	채	채	채	채
2	2	2	2	2	2	2	2

舞	舞	舞	舞	舞	舞	舞	舞
우1	우2	우3	우4	좌4	좌3	좌2	좌1

악사가 악공 16인을 거느리고 북과 대(臺)를 받들고서 동쪽 기둥을 거쳐 들어와 전중(殿中)에 놓고 나간다. 악사가 북채 16개를 안고 동쪽 기둥으로부터 들어와 그것들을 북의 남쪽에 놓고 나간다. 제기(諸妓)가 정읍사를 부르고, 음악이 정읍 만기(慢機)를 연주하면 여기 8인이 넓은 소매를 여미는 자세로 좌우로 나뉘어 나아가 북의 남쪽에 선다. 북쪽을 향하여 가지런히 일렬로 꿇어앉아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가 일어서서 발을 구르고, 꿇어앉아서 뽀족하게 소매를 고쳐 여미고 서서 춤춘다. 끝나고 나서 모두 손을 모으고 꿇어앉아 북채를 짚어 손을 모은 다음 일어서서 발을 구르고 춤추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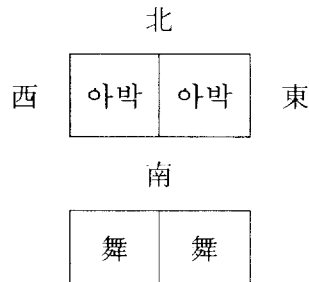
나아간다. 좌우가 서로 이어져서 왼쪽으로 돌며 북을 둘러 춤추면서, 장고의 쌍성(雙聲) 장고의 북편소리에 따라 무고를 친다. 정음 중기(中機)를 연주하고 음악소리가 점점 빨라지면, 장고의 쌍성을 걸러 북편 소리에만 따라서 무고를 친다. 정음의 급기(急機)를 연주할 때에 악사가 절차의 지속에 따라 1강(腔) 걸러 박을 친다. 여기 8인이 손을 모으고 물러가서 나란히 꿇어앉아 북채를 원래 자리에 놓고 넓은 소매를 여미는 자세로 손을 여미고 서서 발을 구르다가 꿇어앉아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가 일어나 발을 구르며 물러가면 음악이 멎고, 악공 16인이 북을 거두어 나가면 악사는 들어가 북채를 걸어 나간다.³⁷⁾

『고려사』 악지에서의 무고는 『악학궤범』에서처럼 여러 사람이 추는 것이 아니라, 악관은 검은 옷에 복두(幘頭)를 쓰고, 두 사람의 여기는 검은 장삼에 붉은 띠를 두르고서, 북 하나를 두고 춤을 추며 「정음사」를 연주하였다. 그러던 것이 『악학궤범』의 기록에는 북의 개수도 하나, 넷, 여덟 등으로 다양해졌고, 음악 또한 만기(慢機)에서 중기(中機), 급기(急機)의 순으로 빠르기가 분화되어 장고의 ‘고·요·편·쌍’ 장단에 따라 불려졌다. 이를 통해 무고는 왕 앞에서 궁중의제 때 엄숙하고 화려한 규모로 연행된 ‘정재(呈才)’로 자리 잡아갔음을 알 수 있다.

「동동」 역시 「정음사」와 마찬가지로 궁중에서 연행되던 모습을 『고려사』 악지와 『악학궤범』을 통해 추측해 볼 수 있다. 아래 제시된 그림 역시 『악학궤범』에 전하는 「아막정재(牙拍呈才)」의 배열도이다.

37) 『악학궤범』 권5.

<아박정재 - 처음 들어올 때 배열>



악사가 동쪽 기둥을 거쳐 들어와 전중(殿中)의 좌우에 아박을 놓으면 무기(舞妓) 2인이 좌우로 갈라 나아가 꿇어앉아서 아박을 집어 들었다가 도로 놓고 일어서서 손을 모으고 발을 구르다가 꿇어앉아 머리를 숙이고 엎드린다. 음악이 동동 만기(慢機)를 연주하면 두 여기가 머리를 조금 들고 기구(起句)[德으란~아으 동동다리]를 부르고, 끝나면 꿇어앉아 아박을 집어 왼편 허리띠 사이에 꽂고 손을 여미고 일어서서 발을 구른다. 제기(諸妓)는 가사[정월령]을 부르고, 두 여기가 춤을 춘다. 음악이 동동 중기(中機)를 연주하면, 제기는 가사[2월령~12월령]를 부른다. 박을 치면 두 여기가 꿇어앉아 아박을 손에 쥐고 손을 여미며 일어서서 박을 치는 소리에 따라 북쪽을 향하여 춤추고 마주 춤을 추고, 또 북쪽을 향하여 춤추고, 등을 마주하고 춤추고, 다시 북쪽을 향하여 춤춘다. 매월의 가사에 따라 춤을 바꾸어 나아갔다 물러났다 하면서 춤춘다. 악사는 절차의 지속에 따라 한 악장을 지날 때마다 박을 치고, 두 기녀는 손을 여미고 꿇어앉아 아박을 원래 자리에 놓고 손을 여미고 일어서서 발을 구른다. 그리고 꿇어앉아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가 일어나 발을 구르면서 물러가면 음악이 멎는다. 악사는 동쪽 기둥 사이로부터 들어가 아박을 가지고 나온다³⁸⁾.

38) 『악학궤범』 권5.

「동동」은 상아(象牙)로 만든 박(拍)이라는 악기를 사용하여 정재로 연주되기 때문에 「아박정재」라고도 불린다. 정재는 임금 앞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월령부터의 내용과 이질성을 갖는 기구(起句), 즉 서연(序聯)에 임금을 송축하는 내용이 덧붙여진 것이다. 이는 정재의 형식에 맞춰지면서 생겨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동동」의 악보를 보면, 여음은 「정읍사」의 여음과 마찬가지로 각 연행에 4회의 여음이 붙어 연주된다. 그리고 장단 역시 ‘고고요편쌍(鼓鼓搖鞭雙)’이 1장단으로 이루어져 「동동」이 갖은 간주와 함께 느린 음악으로 연주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느린 음악에 맞춰 연행된 춤 또한 장엄하고 화려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많은 고려속가들은 궁내에서 왕이 행신들과 더불어 유희를 즐길 때는 물론, 궁이 아니더라도 왕이 정치적 목적으로 지방으로 행차하였을 때에도 임금 앞에서 연주되었다. 이들은 쓰임에 따라 점잖은 송축과 엄숙함이 부각되기도 했지만, 때로는 연회의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질탕한 풍류에 걸맞는 내용이 채택되어 연주되기도 했다. 특히 원 복속기에 이르면 왕들의 황음연락(荒淫宴樂)은 더욱 심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때의 음악은 애정편향적인 것들로 취택하여 연주되곤 했다.

그러나 「동동」, 「정읍사」, 「처용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작품들은 자세한 연행 모습이 자료로 전하지 않으며, 악보와 가사만이 문헌으로 남아 전한다. 다만, 「삼장(三藏)」과 「사룡(蛇龍)」 등은 왕이 즐기던 잔치에 기녀들을 선발하여 비단옷에 말총 갓을 씌워 연주하게 했다는 『고려사』의 기록을 통해 그 연행 모습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궁중의 분위기가 애정편향과 유희 일변도로 흐르면서 조선조에 이르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려속가는 몇 차례의 검열을 거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고려속가 작품은 여전히 궁중의 음악으로 연주되

고 향유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려속가 교육에서는 고려속가가 단순한 노래의 가사가 아니라 고려 시대 엄숙한 분위기의 궁중의례에는 물론 임금이 신하들과 유흥을 즐기던 자리에서도 음악과 춤과 함께 무대 위에서 연행되었음을 학습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려속가의 이 연행적 특징을 학습자가 인지하고,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자료들을 통해 당시의 연행 모습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면 당대의 궁중 문화와 노랫말에 반영된 민중들의 정서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4. 고려속가 지도 방안 및 교수-학습 모형 설계

1) 고려속가의 지도 방안

고려속가는 우리 민족 보편의 정서를 담아 악기의 반주에 맞춰 불렀던 노래로 춤과 함께 궁중의 제례 의식에는 물론 궁중의 연향 자리에서 연행되던 궁중속악임을 앞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행 교육 과정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고려속가 교육 방안으로 문화적 접근 방법의 의의를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고려속가의 구체적 지도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려속가 교육의 문제점은 작품의 어석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의 정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학사적 지식과 함께 내용 파악까지도 주입식

수업의 형태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고려속가의 내용과 형식 등 제반 지식을 단순히 외우게 되고 이는 학습량에 대한 부담감으로 작용하게 된다. 더 나아가서는 고전 문학 전반에 대한 흥미까지 잃게 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각 문학 작품의 장르적 특징에 맞는 구체적 교육 방법의 연구도 아직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고려속가의 문화적 요소에 대한 접근 방법을 통해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문학 교육은 수용과 창작 활동을 중심으로 문학적 상상력과 문학 능력을 길러 문학 문화 발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목표이다. 그 목표에 효과적으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작품 내·외적인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감상하고 자신의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다른 사람과 비교·공유하는 활동이 필요한 것이다. 또 문학이 문화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으로 내면화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고려속가 교육은 학습자 중심의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작품의 감상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리고 교과서만을 교재로 택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고려속가의 장르적 특징을 비롯한 고려 시대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먼저 고려속가 교육의 구체적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다. 고려속가의 형성 배경, 작자층, 향유층, 내용, 형식, 표현 방식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정서적 측면에서는 고려속가 작품에 드러나는 시적화자의 정서를 이해하고, 그것을 창의적인 상황극의 형태로 만들어 발표해 봄으로써 재구성을 통한 정서의 내면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한다. 또 음악적 측면에서는 고려속가가 고려 시대 궁중에서 음악으로 연주되었음을 이해하도록 한다. 그리고 표현 동작적 측면에서는 고려속가가 악기의 반주에 맞춰 춤과 함께 임금 앞에서 궁중속악으로 연행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와 같은 학습 목표 아래 일반적 수업 절차 모형으로 두로 활용되는

‘도입-전개-정리-평가’의 틀에 적용시켜 고려속가의 교수·학습 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입’ 단계는 본격적인 학습을 위한 준비 학습에 해당되며,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 단계에서는 선행 학습과의 연계가 필요하며 그 안에서 학습자의 수준을 진단해야 한다. 그리고 본 수업의 학습 계획과 학습 목표도 학습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고려속가 교육에서는 각 문화적 요소별로 학습 목표를 달리 설정하고, 학습 목표를 학습자에게 낭독하게 함으로써 전체 수업의 방향과 내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고려속가 작품과 관련이 있는 민요 감상하기, 경험 말하기 등의 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학습 동기도 충분히 유발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전개’ 단계는 분석과 접근의 단계로 기본적인 작품의 개관과 내용 파악이 이루어지며, 학습 목표에서 제시한 내용을 모두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고려속가 교육에서 ‘전개’ 단계는 작품의 개관과 내용 파악, 문화적 요소의 이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작품의 개관과 내용 파악의 단계에서는 협동 학습법을 택한다. 이를 통해 교사 중심의 수동적인 분위기를 벗어나 모둠 구성원들이 같은 목표와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 도우면서 학습하는 자율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교사의 개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수업의 계획 제시, 과제의 수행 내용 정리 및 보충 설명 등은 교사의 몫이 된다. 다만 작품의 감상을 교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모둠 활동을 통해 구성원들과 상호 작용함으로써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그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한다. 그리고 작품 속에 담겨 있는 민족의 정서와 생활 양식, 사상 등을 파악함으로써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감상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문화적 요소의 이해 단계에는 각 요소의 특징을 구체적 활동을 통해 파악하도록 한다. 정서적 요소는 작품의 가치와 미의식, 상황의 재구성 등의 활동을 통해 작품이 갖는 현대적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모둠별로 공동의 창작 활동을 함으로써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물론 문학 능력을 비롯한 국어 사용 능력 또한 함께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고려숙가에 드러난 정서를 학습자가 자신의 삶과 연관 지어 봄으로써 작품의 가치는 물론, 그것을 구체적인 삶 속에서 이해하고 창의적인 문학 문화를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음악적 요소와 표현 동작적 요소의 경우는 현전하는 문헌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영상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고려숙가가 연주되고 연행되던 모습을 추측해 볼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사용되던 악보, 악기와 의상, 연행 시 배열도 등은 사진 자료로 제시하여 학습자의 구체적 이해를 돕도록 한다. 그러나 자칫 영상 자료 감상에만 그칠 가능성도 있으므로 교사는 영상 자료를 시청할 때 고려숙가가 궁중에서 음악과 춤으로 연행되던 것이며 개편 과정을 거쳐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학습자가 영상 자료를 통해 고려숙가가 갖고 있는 문학적 가치가 오늘날에는 어떻게 수용될 수 있는지 그 현대적 의미 또한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정리’ 단계는 ‘전개’ 단계에서 활동을 통해 학습했던 내용을 한번 더 정리함으로써 학습자의 이해를 돕는다. 학습 목표와 결부시켜 목표 달성을 이루었는지 내용 정리와 함께 문답의 형태로 확인을 하도록 한다.

마지막 ‘평가’ 단계는 수업의 학습 목표를 달성하였는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로 문학 능력의 하위 구성 요소들을 분리하여 접근하는 분석적 평가와 전체를 통괄하는 총체적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양적 평가가 아닌 질적 평가를 도모하며 수용과 창작 활동을 통합적으로 파

악할 수 있도록 누가 기록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창작 활동은 그 창의성과 진실성을 평가하며 전문적 수준을 요구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여러 가지 평가 방법³⁹⁾을 골고루 활용하여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에게 형성 평가 문제를 풀게 하여 고려속가의 형성 배경, 작자층, 향유층, 작품의 내용, 형식, 표현 요소 등을 이해하고 있는지, 고려속가의 장르적 특징을 이해하고 있는지, 작품에 내재된 문화적 요소를 이해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한다.

그리고 교수·학습 과정에서 이루어진 모둠 활동은 협의하는 과정에서의 태도, 과제 해결의 정확성 등을 관찰·누가 기록하여 평가하며, 수업의 도입 부분에서 이러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학습자들에게 미리 전달한다. 창작 활동에 해당되는 상황극 재구성하기는 학습자들 간의 상호 평가도 함께 실시하는데, 작품의 정서와 상황이 잘 드러나는가, 극의 구성이 창의적인가, 구성원이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하도록 한다.

이상 살펴본 각 단계별 지도 내용을 교수·학습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작품의 감상에서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교사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려속가의 형성 배경에서 평민들의 노래인 민요가 궁중 속악으로 편입되면서 변개의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이를 평민의 문학으로 볼 수 없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습 목표의 달성을 통해 고려속가의 문학적 가치와 그 속에 내재된 문화적 요소가 있음을 알고 나아가 우리의 문학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39) 지필 평가, 관찰 평가, 수행 평가, 교사 평가, 상호 평가, 과정 평가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문화적 측면의 접근 방법으로 고려속가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앞서 지적된 고려속가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문학을 문화로 인식하여 문학의 가치와 전통을 이해하는 데에도 효과적일 것이다. 나아가 학습자는 문학의 즐거움을 알고 문학 능력의 신장과 문학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태도 또한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목표의 달성은 제 7차 교육 과정에서 강조하는 인지적·정의적 영역의 통합을 통한 국어 능력의 신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2) 교수·학습 모형 설계

고려속가의 교육은 앞서 주지한 바와 같이 고려속가의 수용과 창작 활동을 통해 문학 능력은 물론 영역 통합적인 국어 능력의 신장과 문학 문화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그 방향이다. 이는 곧 교수-학습 과정에서 문학 정서의 체험이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실현되어야 함을 말한다. 앞서 살핀 고려속가의 지도 방안에서 제시한 방향을 토대로 하여 고려속가에 나타나는 문화적 요소의 효과적 지도 방안 모형을 「동동」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정서적 요소 교수·학습 모형

단원		동동		차시	1-2	
학습 목표		1. 고려속가의 갈래별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2. 화자의 정서와 노래에 나타난 당대 풍습을 이해할 수 있다. 3. 고려속가의 표현 방식을 이해하고 작품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학습 자료		교사		학생		
		교과서, 인터넷에 연결된 PC, 프로젝터 TV, PPT 자료		교과서, 학습지		
과 정	지도 내용	교수-학습 활동			학습 형태	지도 상의 유의 점
도 입	동기 유발 학습 목표 제시	• 학습 동기 유발, 진단 • 민요 감상(농가월령가) • 학습 목표 제시		• 작품 감상을 위한 태도를 갖춘다. • 민요 감상(농가월령가) • 학습 목표 확인	PPT 자료 :설명	민요 와의 연관 성 설명
전 개	작품 개관 및 내용 파악	• 모둠별 학습지 배부 • 모둠별로 작품을 낭송하게 한다. • 고려속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창작배경, 향유층, 작자층, 내용, 형식, 표현)		• 학습지 내용 확인 • 작품 낭송 • 교사의 설명을 경청하며 필요한 부분은 메모한다.	PPT 자료 -강의	
		• 모둠별로 작품의 내용, 형식, 표현 요소를 찾도록 한다. • 모둠별 발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준다.		• 모둠별로 토론한 후 작품의 내용, 형식, 표현 요소를 찾아 학습지에 정리·발표한다. • 교사의 설명을 들으며 부족한 부분을 메모한다.	모둠 활동	모둠 별 누가 기록
					설명	

과정	지도 내용	교수-학습 활동		학습 형태	지도 상의 유의 점
		교사	학생		
전개	화자의 정서 및 풍습 이해	· 각 연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정서와 고려 시대 풍습을 모둠 활동을 통해 찾아보도록 한다.(모둠별 2연씩) · 모둠별 발표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준다.	· 모둠별로 토론하여 각 연의 시적 화자의 정서와 고려 시대의 풍습을 찾아 학습지에 정리·발표 한다. · 설명을 들으며 부족한 부분을 메모한다.	모둠 활동 설명	
	재구 성하 기	· 앞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화자의 정서와 당시 생활상이 잘 드러나도록 월별 상황극을 재구성하여 발표하도록 한다. · 상호 평가지를 나누어주고 평가 유의사항을 전달한다.	· 모둠별로 앞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월별 상황극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하여 발표한다 · 평가에 대한 교사의 설명을 경청하고 평가 시 유의사항을 지킨다.	모둠 활동 및 발표	발표 시 평가 (학생 -교사)
	정리 및 차시 예고	· 학습 목표에 근거하여 학습 내용을 정리한다. · 차시 예고 및 과제 제시	· 학습 목표와 내용을 함께 이해한다. · 과제를 메모한다.	PPT-강의 문답 설명	
정리 및 평가	평가 및 적용	· 형성 평가 문제를 제시하여 풀도록 한다. - 평가지 배부	· 형성 평가지에 있는 문제를 풀며 본시 내용을 정리한다. - 고려속가의 특징 - 내용 요소(화자의 정서) - 형식 요소(달거리 형식)	평가 지	

◆ 1차시 ◆

【도입】

▷ 학습 목표

1. 고려속가의 갈래별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2. 화자의 정서와 노래에 나타난 당대 풍습을 이해할 수 있다.

▷ 진단학습

1. 학습자의 배경 지식을 진단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전 학습 내용을 환기시킬 수 있도록 한다.
 - 중학교에서 배웠던 고려속가 작품을 말해 보자.
 - 그 작품의 내용과 주제를 말해 보자.
 - 고려속가의 전반적 특징을 알고 있는가?

▷ 학습 동기 유발

1. 학습 목표를 주지시킨다.
 - 학습 목표와 함께 본시 학습할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동동」의 제목을 듣고 떠오르는 생각을 말해 본다.
3. 민요 「농가월령가」를 감상하고, 내용과 형식의 특징을 말해 본다.

【전개】

▷ 작품 개관 및 내용 파악

1. 「동동」을 모듬별로 낭송하게 한다.
2. 모듬별 학습지를 배부한다.
3. 고려속가의 전반적 특징을 PPT 자료로 제시하고,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메모하게 한다.

* 형성 배경

: 고려 시대 평민들의 민요가 궁중속악으로 편입되어 향유되다가 조선 시대에 와서 기록됨.

: 고려 후기 내란과 몽고 침입 등으로 민중의 고난과 귀족들의 폐해가 심했던 시기

* 향유층 : 귀족, 왕족

* 작자층 : 개인으로 알려져 있는 것도 있으나 민요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작자 미상의 작품이 대부분
(넓은 의미에서는 당시 민요를 궁중으로 들여온 기녀나 여무, 관비 등)

* 내용 : 남녀 간의 진솔한 사랑과 이별, 삶의 고통과 애환 등 고려 시대 사람들의 삶이 진솔하게 표현되어 있다.

* 형식 : 분절체, 3음보, 여음(후렴구)

4. 모듬별로 「동동」의 각 연의 내용과 표현 방식을 토론을 통해 찾아보고 발표하게 한다.

- 토론 과정을 지켜보며 올바른 태도로 임하는지 누가 기록한다.
- 발표가 끝나면 학습자들이 찾은 내용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 설명하고,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

▷ 화자의 정서 및 풍습 이해

1. 모듬별로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 연마다 화자의 정서가 당시 풍습과 함께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토론·발표하게 한다.

【정리 및 평가】

1. 본시 학습한 내용을 PPT 자료를 통해 정리한다.

- 고려속가의 전반적 특징
- 「동동」의 각 연별 내용과 형식
- 각 연에 드러난 화자의 정서와 풍습

2. 차시 예고

- 모듈별 해당 연을 상황극으로 만들어 발표

3. 과제 제시

- 모듈별로 상황극 대본을 직접 창작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 화자의 정서와 노랫말에 드러난 상황을 잘 재현하게끔 유의점을 설명한다.
 - 해당 연의 내용을 알고 있는 노래에 맞춰 부를 수 있도록 준비한다.
 - 모듈원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한다.
 - 짧은 상황 속에 화자의 정서를 잘 표현하도록 한다.

4. 평가

- 간략한 질문지를 통해 내용 학습을 확인한다.

◆ 2차시 ◆

【도입】

▷ 학습 목표

1. 고려속가의 갈래별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2. 「동동」의 내용과 화자의 정서를 이해하고 작품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 동기 유발 및 전시 학습 확인

1. PPT 자료를 통해 전시 학습 내용을 정리한다.

- 고려속가의 전반적 특징
- 「동동」의 내용 및 형식
- 각 연에 나타난 화자의 정서와 풍습

2. 다른 사람을 오래 동안 기다렸던 경험과 그때의 심정을 말해 본다.

【전개】

▷ 상황극으로 재구성하기

1. 상호 평가지를 배분하고 유의 사항을 전달한다.
2. 모둠별로 준비해 온 상황극을 발표한다.
 - 다른 모둠에서는 평가 항목에 맞게 발표 모둠의 극을 평가한다.
3. 발표가 모두 끝나면 교사는 발표에 대해 전체적인 평가를 이야기한다.

【정리 및 평가】

1. 고려속가의 갈래별 특징, 「동동」의 내용, 화자의 정서를 정리한다. (PPT 자료)
2. 형성 평가지를 배분하고 풀어보게 한다.
3. 차시 예고를 하고 과제를 제시한다.

(2) 음악적 요소 교수·학습 모형

단원	동동		차 시	
학습 목표	1. 고려속가의 갈래별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2. 고려속가의 내용과 그 표현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3. 고려속가가 음악으로 연주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학습 자료	교사		학생	
	교과서, 인터넷에 연결된 PC, 프로젝터TV, PPT 자료, VCR 자료		교과서, 학습지	
과 정	지도 내용	교수-학습 활동		지도 상의 유의 점 차시
		교사	학생	
도 입	동기 유발 학습 목표 제시	• 학습동기 유발, 진단 • 국악 감상 경험 말하기 • 학습 목표 제시	• 작품 감상을 위한 태도를 갖춘다. • 국악 감상 경험 발표 • 학습 목표 확인	PPT 자료 :설명
	작품 개관 및 내용 파악	• 모듈별 학습지 배부 • 모듈별로 작품을 낭송하게 한다. • 고려속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 학습지 내용 확인 • 작품 낭송하기 • 경청하며 필요한 부분 메모하기	PPT 자료 : 강의
전 개	작품 개관 및 내용 파악	• 모듈별로 작품의 내용, 형식, 표현 요소를 찾고 토론하여 학습지에 정리하게 한다. • 모듈별 발표 내용을 다시 정리해 준다.	• 모듈별로 토론한 후 작품의 내용, 형식, 표현 요소를 학습지에 정리·발표한다. • 교사의 설명을 경청하며 부족한 부분은 메모한다.	모듈 활동 : 설명
				학습 자의 능동 적 참여 유발 (누가 기록)

과 정	지도 내용	교수-학습 활동		학습 형태	지도 상의 유의 점
		교사	학생		
전 개	고려 속가 의 음악 적 성격 이해	· 모듬별로 찾아온 고려 속가 작품의 악보(정간보)를 제시하도록 한다. - 사진 파일로 제시 · 학생들이 제출한 정간보를 보여주며 정간보의 유래와 특징을 간략하게 ppt 자료를 통해 설명한다.	· 모듬별로 조사해온 고려 속가 작품의 정간보를 제출한다. · 정간보의 유래와 특징을 메모하여 경청한다.	ppt 자료 :설명	
		· 「동동」 연주 실황 자료를 제시하고 감상하게 한다. 한다. - 그 외 현재까지도 전해져 연주되는 고려 속가 작품이 있음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 모듬별로 감상 후 느낌을 발표한다.	· 「동동」의 연주 실황 영상을 감상한다. - 고려 속가의 곡조가 조선 시대에도 이어져 현재까지 전해지는 작품도 있음을 이해한다. · 감상 후의 느낌을 모듬별로 발표한다.	영상 자료 발표	
정 리 및 평 가	정리 및 차시 예고	· 학습 목표에 근거하여 학습 내용을 정리한다. · 차시 예고 및 과제 제시	· 학습 목표와 내용을 함께 이해한다. · 과제를 메모한다.	PPT :문답	
	평가 및 적용	· 형성 평가 문제를 제시하여 풀도록 한다. - 평가지 배부	· 형성 평가 문제를 풀어보면서 본시 학습 내용을 정리한다.	평가 지	

(3) 표현 동작적 요소 교수·학습 모형

단원		동도		차시	
학습 목표		1. 고려속가의 갈래별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2. 고려속가의 내용과 그 표현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3. 고려속가가 궁중속악으로 연행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학습 자료		교사 교과서, 인터넷에 연결된 PC, 프로젝터TV, PPT 자료, VCR 자료		학생 교과서, 학습지	
과정	지도 내용	교수-학습 활동		학습 형태	지도 상의 유의 점
		교사	학생		
도입	동기 유발 학습 목표 제시	• 학습동기 유발, 진단 • 학습 목표 제시	• 작품 감상을 위한 태도를 갖춘다. • 학습 목표 확인	PPT 자료	
	작품 개관 및 내용 파악	• 모듬별 학습지 배부 • 모듬별로 작품을 낭송하게 한다. • 고려속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 학습지 내용 확인 • 작품 낭송 • 교사의 설명을 경청하며 부족한 부분은 메모한다.		
전개		• 모듬별로 작품의 내용, 형식, 표현 요소를 찾고 토론하여 학습지에 정리하게 한다. • 모듬별 발표 내용을 다시 정리해 준다.	• 모듬별로 토론한 후 작품의 내용, 형식, 표현 요소 등을 학습지에 정리·발표한다. • 교사의 설명을 경청하며 부족한 부분은 메모한다.	모듬 활동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 유발 (누가 기록)
				설명	

과 정	지도 내용	교수-학습 활동		학습 형태	지도 상의 유의 점
		교사	학생		
전 개	고려 속가 의 연행 적 성격 이해	· 조사해 온 고려 시대 음악에 사용된 악기의 명칭을 발표하게 한다. · 조사해 온 명칭을 바탕으로 고려속가에 사용된 악기들의 사진을 제시한다.	· 모듬별로 조사해온 고려 시대에 사용된 악기 명칭을 발표한다. · 고려 시대 사용된 악기의 모습을 기억하며 교사의 설명을 경청한다.	사진 자료 :설명	이어 제시 할 작품 에사 용된 악기 중점 설명
		· 「동동」이 연행되던 모습을 영상 자료로 제시한다. -아박무의 영상 자료 -영상물을 보며 고려속가가 노래와 함께 음악과 춤으로 궁중에서 향유됨을 설명한다. · 모듬별로 감상 후 느낌을 발표하게 한다.	· 앞서 배운 「동동」의 노래 내용을 생각하며 「동동」의 영상 자료를 감상한다. -고려속가가 궁중속악으로서 노래, 음악, 춤으로 향유됨을 이해한다. · 감상 후의 느낌을 모듬별로 발표한다.	영상 자료 발표	궁중 에서 연행 되던 상황 을 함께 설명 하도 록 한다.
정 리 및 평 가	정리 및 차시 예고	· 학습 목표에 근거하여 학습 내용을 정리한다. · 차시 예고 및 과제 제시	· 학습 목표와 내용을 함께 이해한다. · 과제를 메모한다.	PPT :문답	
	평가 및 적용	· 형성 평가 문제를 제시하여 풀도록 한다. - 평가지 배부	· 형성 평가 문제를 풀어보면서 본시 학습 내용을 정리한다.	평가 지	

IV. 결론

본고는 최근 문학 교육 연구가 문화적 원리를 강조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그 방향에 궤를 같이 하여 현행 교육 과정을 잘 실천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살펴보고자 했다.

먼저, I 장에서는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최근 연구가 고전 문학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교육적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음을 알았다. 이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고려속가의 효과적 교육을 위해 문화적 측면의 접근 방법이라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II 장에서는 제7차 교육 과정에서 ‘문학’ 과목의 목표와 내용 체계, 고전 문학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우리는 고전 문학 교육을 통해 작품 속에 내재된 조상들의 정서를 비롯한 삶의 양식과 당대의 사회·문화적 정서 그리고 노래 속에 응축된 문화적 상상력을 이해할 수 있다.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문학 능력 신장은 물론 문학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도 기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고려속가는 고전 문학으로서의 교육적 가치에 더하여 장르의 특성상 다양한 측면의 접근 방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가 크다. 그러나 작품의 어석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의 정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고려속가 교육은 주로 문학사적 지식과 함께 내용 파악까지도 주입식 수업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고려속가의 내용과 형식 등 제반 지식을 단순히 외우게 되고, 이는 학습량에 대한 부담감으로 작용하게 된다. 결국 이 부담감은 고전 문학 전반에 대한 흥미까지 잃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각 문학 작품의 장르적 특징에 맞는 구체적 교육 방법의 연구도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III장에서는 문화적 요소에 대한 접근 방법을 통해 효과적인 고려속가 교육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했다.

문학 교육은 작품 중심의 교육이 아닌 사고와 표현, 문화를 고려하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인식 아래 고려속가에 응축된 민족 보편의 정서와 연행적 성격이 문학 교육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장르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가시리」, 「서경별곡」, 「정읍사」, 「동동」을 중심으로 정서적 요소, 음악적 요소, 표현 동작적 요소가 어떻게 작품 속에 나타나 있는지, 또 어떻게 교육적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정서적 요소는 ‘이별의 정한’과 ‘기다림’의 정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가시리」와 「서경별곡」에는 사랑하는 임을 떠나보내는 여인의 슬픔이 응축되어 드러난다. 그리고 「정읍사」와 「동동」에는 기다림과 연모의 정이 드러난다. 이 정서는 고대 가요부터 우리 시가 문학에 면면히 이어져 오는 보편적 정서로 현대를 사는 우리도 일상 생활에서 자주 체험하게 되는 정서이다. 그러므로 작품의 이별 상황을 재현하고 화자가 되어 봄으로써 그 정서를 내면화할 수 있다. 그리고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정서의 현대적 의미까지도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고려속가 교육에서 최대한 장르적 특성을 잘 살리고 학습자들에게도 올바른 우리 문화를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음악적인 접근 방법도 필요할 것이라 보았다. 고려속가가 교방기녀들이 악기의 반주에 맞춰 노래 부르던 궁중의 속악임은 현전하는 『고려사』 악지 등의 문헌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선 초기 문헌인 『세종실록(世宗實錄)』 악보, 『시용향악보(時用鄉樂譜)』, 『대악후보(大樂後譜)』 등의 문헌에는 고려속가 작품의 악보와

속악의 악조명, ‘궁(宮을)’ 중심으로 한 음계 및 ‘고(鼓)·요(搖)·편(鞭)·쌍(雙)’의 장단(長短), ‘여음(餘音)’ 등이 전하고 있어 고려 시대에 음악으로 향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많은 자료들이 유실되고 현전하는 작품 수는 적으나 국악학계에서도 고려속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작품들은 현재까지도 연주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료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학습자들도 고전이라는 거부감에서 벗어나 친숙하고 자연스럽게 고려속가의 특징을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려속가의 표현 동작적 요소는 그 연행적 성격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고려사』 악지의 「정읍사」와 「동동」, 「무애(無罽)」, 『악학궤범』의 향악정재조에 「아박정재」, 「무고정재」 등에는 여러 속악의 자세한 연행 순서와 동작, 의상, 악기 등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궁중의례는 물론 연향 자리에서도 향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동」, 「정읍사」, 「처용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작품들의 자세한 연행 모습은 자료로 전하지 않으나 유사한 형태로 향유되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고려속가의 이러한 연행적 특징을 학습자가 인지하고,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자료들을 통해 당시의 연행 모습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면 당대의 궁중 문화와 노랫말에 반영된 민중들의 정서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상 살펴본 고려속가의 문화적 요소를 중심으로 ‘도입-전개-정리-평가’의 틀에 적용시켜 교수·학습 과정을 제시하였다. 실제 교수·학습 모형에서는 협동 학습을 통해 고려속가 작품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황극으로 화자의 정서를 재구성하고, 영상 자료로 고려속가의 연행 모습을 감상해 봄으로써 당대의 문학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문화적 측면의 접근 방법은 고려속가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학습자가 문학의 가치와 전통을 이해하는 데에도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문학 능력의 신장과 문학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에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고려속가 교육의 방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효과적 교육 방안에 대한 하나의 방법론으로 문화적 접근 방법을 제시하였다. 비록 많은 한계점을 안고 있기는 하나 나름의 방법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고자 한다.

앞으로도 고려속가의 효과적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 교육과정의 목표를 잘 실천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교육자료>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부 고시 1997-15호 「고등학교 교육 과정 해설 2. 국어」, 대한교과서, 2001.

검인정 교과서 18종, 2003.

-교학사, 교학사 김대행 외, 금성출판사, 대한교과서, 두산, 디딤돌, 문원각, 민중서림, 블랙박스, 상문연구사, 중앙교육, 지학사, 지학사 권영민, 천재교육, 청문각, 케이스(한국교육미디어), 태성출판사, 형설출판사.

<단행본>

『악학궤범』

『고려사』

김문환, 『문화교육론』, 서울대학교출판사, 1999.

김쾌덕, 『고려노래 속가의 사회배경적 연구』, 국학자료원, 2001.

레스리 A. 화이트, 『문화의 개념』, 일지사, 1981.

박노준, 『고려가요의 연구』, 새문사, 1990.

박영순, 『21세기 국어교육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사, 2002.

양태순, 『고려가요의 음악적 연구』, 이회문화사, 1997.

우한용, 『문학교육과 문화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이혜구, 『정간보의 정간, 대강 및 장단』, 세광음악출판사, 1987.

장사훈, 『국악논고』, 서울대출판부, 1966.

조동일, 『한국시가의 역사의식』, 문예출판사, 1993.

차주환 역, 『고려사악지』, 을유문화사, 1972.

<논문>

- 권오경, 「제7차 교육 과정과 시가문학교육」, 『안동어문학』 4집, 안동어문학회, 1999.
- 김영운, 「고려가요의 음악형식 연구」, 『한국중세사회의 음악문화-고려시대편』, 민속원, 2002.
- 김윤정, 「고전시가 교육방법 연구: 전통의 현대적 계승을 중심으로」, 숙명여대학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김시용, 「고등학교 문학교과와 고려가요 교수-학습 모형연구」, 위덕대학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김홍규, 「고전문학 교육과 역사적 이해의 원근법」, 『한국 고전문학과 비평의 성찰』, 고려대학교출판부, 2002.
- 박경주, 「고전문학 교육의 연구 현황과 전망 - 시가교육을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1집, 청관고전문학회, 1999.
- 박인기, 「문화적 문식성의 국어교육적 재개념화」, 『국어교육학연구』 15집, 국어교육학회, 2002.
- 서종문, 「고전문학 교육의 과제와 전망」, 『국어교육연구』 33집, 국어교육학회, 2001.
- 성기옥·김은미, 「고려속요의 문학교육적 지도방안-고려속요에 나타난 해석의 다양성을 중심으로」, 『교과교육학연구』 3권 1호, 이화여대학교과교육연구소, 1999.
- 송방송, 「고려 향악의 악조에 대한 음악사적 고찰」, 『한국중세사회의 음악문화-고려시대편』, 민속원, 2002.
- 염은열, 「고려속요의 미적 구조에 관한 연구-내적 형식의 이야기성과 그 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 「시교육과 고전」, 『현대시교육론』, 시와시학사, 1996.

- 윤성현, 「고려 속요의 서정성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 이유지, 「고려속요 지도의 방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영, 「국어교육 내용 연구의 현황과 과제」, 『국어교육학연구』 14집, 국어교육학회, 2002.
- 이정도, 「고려속요 교육론-정서체험과 내면화 방안을 중심으로」, 세명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임기중, 「續高麗歌謠 動動攷」, 『한국학연구』 1, 동국대학교한국학연구소, 1976.
- 허왕욱, 「제7차 교육 과정에 따른 고전문학 교육의 방향」, 『한어문교육』 7집,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1999.